

언제나 더케이

The·K는 언제나 교육가족 옆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더 높이 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에다함상조

ccm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The·K

MONTHLY MAGAZINE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실천
농업계의 슈바이처이자, 세리키 아그베
코넬대학교 명예교수 한상기 박사



「인생 이모작」
매직으로 일로매진(一路邁進),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펼칩니다
마술하는 퇴직 교사 노상원 회원



「꿈 너머 꿈」
나눔의 배를 타고 꿈의 바다로
아꿈선 연구회
조민호·곽남지 교사

2023 03
vol.67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시대적 한계를 넘어 혁신을 이룬 한국 농업교육의 선구자 조백현 선생
배움 더하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진정한 생태교육 학교 텃밭에서 시작된다, 텃밭이 미래 교실인 이유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봄추위 속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매화, 전남 광양 매화마을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교육 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로 시작하는 똑똑한 미래 설계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MARCH. 2023 I vol. 67







04 여는 글
삶의 원천이자 미래, 우리 먹거리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06 이달의 도움 회원

08 The-K 에술가
햇볕이 입김을 불어 겨우 얼음을 뚫었다
개울물이 겨울잠에서 깼다

10 에세이
배추가 만들어준, 내일이 기다려지는 일상

12 좋은사람 좋은 생각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실천
농업계의 슈바이처이자, 세리키 아그베
_ 코넬대학교 명예교수 한상기 박사

16 역사 속 숨은 영웅
시대적 한계를 넘어 혁신을 이룬
_ 한국 농업교육의 선구자 조백현 선생

20 우리 어렸을 적에
방학 끝~! 새 학년, 새 출발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22 오늘의 학교
제대로 배우면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융합기술과 만난 농업의 미래
_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강대구 교수

26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진정한 생태교육 학교 텃밭에서 시작된다
텃밭이 미래 교실인 이유

30 미래 잡(job)자
미래 농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밀농업 전문가

32 꿈 너머 꿈
나눔의 배를 타고 꿈의 바다로
_ 아꿈선 연구회 조민호 & 곽남지 교사

36 고민 상담소
실패를 예측하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무기력
새 학기, 우리 아이 마음에 건강한 희망 심기

38 인생 이모작
매직으로 일로매진(一路邁進),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펼칩니다
_ 마술하는 퇴직 교사 노상원 회원

- **발행일** 2023년 3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최용호, 김경희, 오수민, 박연희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42 방방곡곡 숨은 명소
봄추위 속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섬진강 변에 구름처럼 퍼져가는 매화, 전남 광양 매화마을

48 마음쉼
새 학기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온 3월
번아웃(Burn-Out) 예방과 관리

50 The-K 예방의학
봄철만 되면 간지럽고 빨간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법

52 키워드로 읽는 시사
어린 시절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늙지 않는 어른이들의 세상 '네버랜드 신드롬'

54 똑똑! 트렌드 경제
올해 경제 키워드는 소비 디톡스, 적게 쓰고 많이 모으는 법

56 건강한 집밥
겨우내 웅크렸던 신체를 깨워줄 고소하고 바삭한 봄철 견과류 밥상

60 DIY 리사이클링
고래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자
버려진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업사이클링 기업 '우시산'
&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해양생물 모양 소품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64 The-K Focus
교육 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로 시작하는 똑똑한 미래 설계

68 The-K Family
교직원 최고의 복지 포털 & S2B
교육 가족이기에 행복한 세상!
The-K 교직원나라가 열어드리겠습니다

72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76 회원 의견

80 The-K Family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가입 회원님들을 위한 서비스
교직원라이프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소개합니다!

81 The-K OX 퀴즈

82 새로워진 「The-K 매거진」 & 온라인 이벤트

83 즉석 당첨 이벤트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삶의 원천이자 미래, 우리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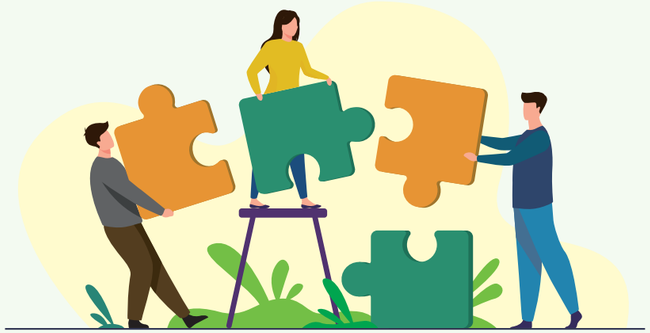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곡물이 채워진 식탁이 당연할 만큼 우리 생활은 넉넉해졌습니다.
70년 전 전쟁과 기아에 허덕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도 우리 땅에는 아직까지 벼와 보리, 배추와 무가 자랍니다.
농업의 비중이 작아지고 청년 농업 인구가 줄었다지만,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새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먹거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초록 새싹을 움트게 하는 소중한 계절 봄의 정령이 그래서 무척 반갑습니다.

「The-K 매거진」 3월호에서는 세계적인 식물육종학자로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주식인 카사바의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농업교육을 펼쳐 영웅으로 추대된 한상기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농학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고 농업의 선진화·과학화에 힘썼던 '역사 속 숨은 영웅' 조백현 박사가 지나온 길을 반추하고
순천대학교 강대구 교수를 만나 다양한 농업의 진로와 농업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꿈 너머 꿈'에서는 소외된 농·어촌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며
학생들을 교육하는 '아꿈선 연구회'의 조민호·곽남지 교사의 선한 영향력에 물들어봅니다.
이른 봄의 추위에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매화가 가득한 전남 광양 매화마을을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서 소개하며
경제 불황 속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소비 디톡스', 적게 쓰고 많이 모으는 법도 배워봅니다.
'DIY 리사이클링'에서는 선박들이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친환경 제품을 제작해온 사회적 기업 '우시산'을 소개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바닷속 동물 모양 소품 만드는 법을 제안합니다.
3월 새롭게 출발하는 예비·신규 회원님을 위해 공제회 대표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The-K 교직원나라의 계약 플랫폼 S2B와
최저가 상품, 전용 패키지 등으로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더케이몰의 서비스와 혜택도 담았습니다.

삶의 원천이자 미래인 우리 식량 자원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도움 회원

「The-K 매거진」 '이달의 도움 회원' 코너에서는 매거진 제작에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과 스태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월 매거진 제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신 인터뷰이(interviewee)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애써 주신 도움 회원과 스태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울산신중년마술협회 **정상규 회원**

"마술로 청춘을 다시 살아갑니다"

정상규 회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이번 호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인 노상원 회원과 마술을 함께하는 친구 사이이자 옛 동료입니다. 첫 부임지였던 울산 두광중학교에서 노상원 회원을 처음 만났던 정상규 회원은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17년 9월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산연금관리공단의 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와 다시 만났습니다. 6개월여의 교육을 마친 뒤엔 두 사람을 포함한 15명의 교육생이 '울산신중년마술협회'를 꾸려, 마술도 같이 익히고 봉사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손주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비단 내 손주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마술이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마술을 하지만, 한결같이 좋아해서 참 행복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15명의 회원 가운데 퇴직 교사는 정상규 회원과 노상원 회원뿐입니다. 교직에 몸담았던 만큼 두 사람은 마술의 여러 분야 가운데 교육마술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날들. 지금이 바로 '청춘'입니다.



아꿈선(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합니다) 연구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꿈도 키웁니다"

'꿈 너머 꿈'에 소개된 조민호 교사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꿈선'은 본래 광주·전남 지역 교사들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도시농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6년 설립됐고, 과학실험 및 전 교과 콘텐츠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대상 교육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기를 모집해 현재는 6기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규모도 전국으로 커져 과학 이외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필수과목부터 특수, 보건 같은 과목도 다루는 연구회로 확대됐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적극 활동 중인 한도윤 교사는 "처음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큰 단체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꿈선은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교사모임이 되자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죠."라며 '아꿈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시작은 '아이들의 격차 없는 교육 실현'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꿈선 교사들은 봉사라는 성취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자신들의 꿈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The-K교직원나라 **손미르 주임**

"공제회원들을 위한 특가 상품과 특화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이번 호에는 교직원 복지 포털 서비스와 S2B 사업을 운영하는 The-K교직원나라(주)가 소개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진행된 S2B 전문강사·패널단 워크숍에 찾아가 현장을 담고, S2B 서비스를 사용 중인 기관을 취재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전했는데요. 교직원나라의 손미르 주임은 이번 기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취재팀과 소통하고 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며 교직원나라의 주요 서비스가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홍보마케팅 파트의 대외 SNS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손미르 주임은 "청렴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S2B 서비스를 더 많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소감과 함께 "좋은 제품을 특가로 판매하는 더케이몰을 더 많은 회원님이 찾아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라며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정진철 교수**

"우리 농업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이끕니다"

'오늘의 학교'에 소개된 순천대학교 강대구 교수는 우리 농업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정진철 교수는 강교수와 함께 농업교육을 고민하는 4H 활동* 회원입니다.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요즘 우리의 농업은 건강한지, 앞으로 농업을 맡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교수는 단순히 작물을 심고 기르는 농업이 외에도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젊은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농업은 혁신과 융합을 통해 미래 인류의 삶의 지탱해 주는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청년뿐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파해주시길 기대합니다."

*4H 활동 : 청소년들이 지(智)·덕(德)·노(勞)·체(體)의 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운동

이달의 도움 스태프

"교육의 위대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6년이라는 시간"

이경희 작가

「The-K 매거진」 제작에 참여하는 인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구성원을 꼽자면 단연 이경희 작가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매거진 취재를 맡은 후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원 인터뷰, 여행 칼럼, 커피트럭 등의 콘텐츠를 통해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성실함과 정성으로 지면을 채우는 이경희 작가를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 취재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은 참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고민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늘 제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직원공제회 직원들이 회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제회 회원 초청 취재를 많이 맡았던 제게 항상 회원님께 가장 좋은 걸 하나라도 더 챙겨주십사 늘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런 마음을 알기에 저 역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취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제회 회원 여러분과 행복한 동행 계속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The-K 예술가」는 그림·조각·서예·시 등 회원님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지상 갤러리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재능과 꿈을 지면에 담아 더 많은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햇볕이 입김을 불어 겨우 얼음을 뚫었다.
개울물이 겨울잠에서 깼다.



목련화 | 백용선 회원 (前 광동고등학교)

유화 90.3*72.7cm, 2018

작가 노트 :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에 피는 꽃인 교정의 목련은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 꿈과 희망을 만들어준다.
봄날의 목련을 보고 있노라면 가곡 '목련꽃 그늘 아래서'와 양희은의 '하얀 목련'의 가사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학창 시절의 추억과 그때 그 시절 친구를 그리며 그려본다.

봄 개울

신
현
득

햇볕이 입김을 불어
겨우 얼음을 뚫었다.
개울물이 겨울잠에서 깼다.

그제야 산 그림자가
물속에서 와 잠긴다.
버들개지도 제 얼굴을 비춘다.

가재가 잠에서 깨어
굴속에서 기어 나온다.
실지렁이도 잠에서 깼다.

햇볕은 물 밑에 쌓인다.
따뜻하다.
햇볕은 피라미 새끼 체온이 된다.
햇볕은 붕어 새끼의 체온이 된다.

따뜻하다.

까치 울음이
물속까지 들린다.
비둘기 구슬픈 울음도 들린다.

움츠렸던 물줄기가 벋는다.
물소리가 난다.
미나리 하얀 발이 씻긴다.

먼 산 바람 소리가
물에 실려 내려온다.
산새의 노래도 실려 온다.



WRITER

신현득 시인은 1933년 경북 의성에서 출생했으며,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부에 입선했다. 초등학교 교사 및 한국일보사 소년한국 편집국 취재부장을 지냈고, 대학에서 20여 년간 「아동문학론」을 강의했다. 동시 『엄마라는 나무』(1971)로 세종아동문학상을, 항일시집 『속 좁은 놈 버릇 때리기』로 한국자유문학상(2015)을 수상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아기 눈』(1961), 『고구려의 아이』(1964) 등의 동시집과 동화집, 국민시집이 다수 있으며 2021년에는 서른여덟 번째 동시집인 『구름 마을 구름 학교』를 발간했다.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에세이」는 교육 가족의 마음이 느껴지는 공감 에세이로, 업무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배추가 만들어준, 내일이 기다려지는 일상

글 이남연 교사 (나산실용예술중학교)

이남연 교사는 현재 전남 함평 나산실용예술중학교에 근무중인 영어 교사로 퇴직을 2년 반 앞두고 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서 그동안의 교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및 동료교사나 제자들과의 교류 활동들을 엮어 책을 발간하는 꿈을 갖고 있다.

2022년 3월, 퇴직을 3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4년 간격으로 발령을 받고 새로운 부임지에 정착해 교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번엔 기나긴 그것의 종착역임을 실감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면 교직 생활에 깊은 회의감이 들곤 했다. 그래도 아직 조금 남은 교직 생활에 대한 안도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싶은 소망을 안고 새로운 학교 정문에 들어섰다. 떨리는 마음으로 난생처음 기숙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이 80명가량인 작은 규모의 학교지만 전라남도 각 군에서 본인 의지로 지원한 학생들이 저녁에는 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면학 활동과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시설이 매우 훌륭하고, 취타대 연습을 할 때면 그 멋진 소리가 밤하늘에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학생들은 선후배 사이에 끈끈한 학우애가 돋보이며, 교사를 대하는 태도도 애틋해 40년 전 1980년대 학생들을 연상시킬 정도로 순수하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란 바로 이런 학교를 이르는 말일 것이다.

우리 학교의 특색 사업으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를 시작했다. 이는 김장 배추를 잘 심고 가꿔 김장 김치를 담근 후에 어려운 분들께 나눠 드리자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나 선뜻 누구도 배추를 심고 가꾸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배추는 아무나 재배하기 어려운 채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2022년 8월 25일 용기를 내 교장 선생님께 건의했다. 급식실 가는 길목에 무성한 풀과 함께 놀고 있는 유휴지가 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도 "꽃을 심어야지요"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내 돌아서며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하셨다.

교직원들에게도 배추 재배를 공식화했다. 이 일이 모험인 줄 알지만 한번 해보자는 약속이었다. 자신은 없었지만,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의 물심양면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땅을 삽으로 팔 때 첫 삽도 떠 주셨고 배추 모종, 비료 등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 집행해 주셨다. 가끔은 벌레도 잡아주셨다. 한 번도 경작한 적이 없는 땅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잘 파지지도 않아 물을 뿌려 땅을 축축하게 적시고 달래가며 파야 했다. 3~4일 지나자 채소밭의 윤곽이 드러났다. 처음이고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로 비닐 멀칭(mulching)도 했다. 9월 1일, 드디어 채소를 심을 수 있었다. 학교에선 배추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종을 사주셨다. 덕분에 배추, 무, 쪽파, 당근까지 심을 수 있었고 집에서 가져온 싹튼 감자로 감자밭도 일구었다.

배추를 심은 지 5일 만에 무서운 태풍이 휘몰아쳤다. 저녁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식사를 하러 가는 데 폭우로 배추밭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이 아닌가. 배추밭이 잠길 위기였다. 홍수가 난 것이다. 비가 몰아치는 캄캄한 저녁, 우비를 입은 후에 삽을 들고 물길을 내주었다. 배추밭에 고랑이 있지만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태풍에 어린 배추들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이 하룻밤이 지나고, 고맙게도 태풍이 물러갔다. 다음 날 아침, 배추밭을 살펴보니 어린 배추들은 다행히 무사했다. 내가 터준 물길 덕분에 그 많던 빗물이 싹 빠져나간 것이다.

배추는 무럭무럭 자랐다. 언덕배기에 심은 쪽파도, 아래쪽에 심은 무와 당근도 모두 잘 자랐다. 자기 전에 유튜브 농사 채널을 보며 농사 공부를 하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출근 전까지 채소밭에서 채소를 돌봤다. 아침에 채소밭에 도착하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하나 상태를 살피고, 물 주고, 어떤 채소에는 퇴비를 더 주기도 한다.

어느 날은 청개구리가 배춧잎에 앉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카메라에 애벌레도 잡혔다. 매일 사진을 찍어 상태를 파악하고, 그날그날 채소밭 뉴스를 배추밭 일지에 기록했다. 동네 할머니도 배추 구경을 하러 오셔서는 배추 잘 큰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다.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즐거웠다. 어떤 학생은 배추밭에 들어와 물을 주기도 했다. 아침마다 배추밭에 나와 채소들을 돌보고 있으면 지나가던 학생들은 머리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엄청난 응원이자 힘이 된다.

어느덧 배추를 심은 지 40일이 지나 배춧속이 차오르는 결구가 시작된 것을 보니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내 눈에는 배추가 장미처럼 보였다. 처음에 나 자신도 이 황무지가 채소밭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했고, 일은 벌어졌다.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 김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소밭을 계속 열심히 돌볼 것이다. 우리 학교의 전 가족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사실상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학교 가족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다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믿고 싶다. 그래서 나는 밤에 배추 농사를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 배추와 만나는 이 생활이 즐겁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이다. 아침이 되기를 너무나 기다리는 나날이다. 덕분에 내일이 기대되는 경험으로 하루가 가득 차 있다. 내 삶에 희망을 주었으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생태 체험의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믿고 싶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채소에도 감사하다. 나는 이 계절에 배추밭에 찾아오는 방아깨비, 청개구리, 애벌레도 때로는 한 가족이며 귀여운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전교생이 지나다니며 보는 곳에 김장 배추가 자라고 있다는 것, 이만큼 특별한 일이 더 있겠는가! 참 감사하고픈 나날이다. Ⓚ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에세이」「나도 칼럼니스트」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업무 현장을 비롯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육 가족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는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교육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작품을 선정해 매거진에 실어드리겠습니다.

★ 원고 분량 : 원고지 12매 (A4 1매 반)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마감일 : 매월 10일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멘토들에게 귀 기울이고 교육 철학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실천

농업계의 슈바이처이자, 세리키 아그베(Seriki Agbe: 농민의 왕)

코넬대학교 명예교수 한상기 박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식물은 죽어서 삶을 남긴다. 식물이 살아 꽃 피고 열매 맺고 사그라지는 자연스러운 일을 해내야 사람과 동물도 살며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다. 50여 년 전, 한상기 박사는 이러한 생(生)과 생의 연결을 위해 나이지리아로 떠났다.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 식량을 선물한 동양인 추장, 한상기 박사를 만났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세계적인 식물유전육종학자인 한상기 박사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주식인 카사바의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전역에 농업교육을 펼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포기하고 선택한 아프리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량이고 제일 아쉬운 것이 사랑이다." 한상기 박사가 쓴 「작물의 고향」 앞 장에 적혀 있는 말이다. 식량은 사랑 앞에 놓일 수 있는 유일한 말일 것이다. 문화(culture)라는 말도 라틴어 'cultura', 즉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식량이 있기에 우리는 살며, 문화를 탄생시키고, 또 사랑할 수 있다.

1933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한상기 박사는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느끼며 자랐다. 이런 어릴 적 경험은 한 박사를 농학자의 길로 인도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식물유전육종학 박사학위를 딴 후 모교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던 어느 날, 한상기 박사 앞에 새로운 갈림길이 놓였다. 하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초청으로 그곳에서 식물유전육종학을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지리아 국제열대농학연구소(IITA)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 작물을 개량하는 것이었다. 내전이 끝난 뒤인 1970년 나이지리아에서는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농토는 피폐해졌고,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로 8억 명이 주식으로 삼고 있던 카사바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병들어 말라 죽어갔다. 주식(主食)이 사라진 나라에는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깔렸다. 다행히 미국의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나이지리아에 국제열대농학연구소가 개소를 준비하면서 연구에 뛰어들 인재를 찾고 있었다. 한상기 박사는 1971년 나이지리아 경유런던 행 비행기표를 사서 우선 나이지리아로 떠났다. 황폐한 땅과 굶주린 사람들을 보니 두려움보다 사명감이 앞서 고개를 들었다. 작물의 존부(存否)는 인간의 존부와 직결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안전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하겠다'라고 적은 휴직계를 서울대학교에 내고는 머나먼 땅으로 향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린 슈퍼 카사바 개량

나이지리아에서 한상기 박사는 본격적으로 바이라스 병과 박테리아 병에 강하고 다수성인 카사바 연구에 돌입했다.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형질, 저항성 유전자원을 찾기 위해 카사바의 원산인 브라질로 건너가 관련 전문가를 만나고 종자도 얻어왔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종(種)을 수집한 덕분에 마침내 그는 결국 내병성이 강하고 다수성인 품종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끈질긴 연구 끝에 1976년 내병다수성 카사바 품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병에 강하고 잘 자라는, 말 그대로 슈퍼 카사바였다. 개량에 성공했으니 이제 다음 과제는 농촌지도체계 없는 아프리카에 내병다수성 카사바를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었다. 빠르고도 확실한 보급을 위해 한상기 박사는 개량된 카사바 줄기를 트럭에 싣고 나이지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보급하기도 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종이를 이어붙인 한상기 박사의 여권



한상기 박사와 그가 개발한 슈퍼 카사바

"죽어 있는 카사바 밭이 보이면 멈춰서 거기다 카사바 줄기를 꽂고 왔어요.그런 우리를 보고 처음엔 농가에 주술을 걸었다' 라며 화를 내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거기서 좋은 카사바가 나타나니 나중에는 '신의 은총'으로 여기더군요."

한상기 박사의 노력 덕분에 카사바는 주민과 마을, 시장을 통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다. 한 박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식량 문제를 다룬 당시 기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1974년 1월만 해도 나이지리아 국영지 전면에는 '세계가 식량난에 봉착해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내걸렸다. 하지만 1976년 11월, 우려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국영지 전면에는 '카사바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라는 글과 함께 '한상기 박사가 저항성이 강한 카사바 종을 만들었다'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다. 조용하고도 놀라운 혁명이었다.


추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지팡이를 손에 든 한상기 박사의 모습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된 다양한 상패들

농민의 왕, 그리고 아프리카 농업교육의 아버지

슈퍼 카사바를 개량한 일로 한상기 박사는 휴직 신청을 할 때의 다짐처럼 국위 선양을 이뤘다. 1982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1996년에는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자랑스런 서울대인상'을 수상했다. 1982년 영국 기네스(Guinness) 과학 공로상, 1984년 국제구근작물학회 제1회 우수 봉사상을 받고, 영국 세계 농업 명사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의 업적은 1980년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와 2011년 6학년 1학기 교과서 '국어 읽기'에도 소개됐다. 한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책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은 200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2쇄나 재발행됐다. 그는 "청주 한씨 종친회에 가면 '문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이는 한석봉 선생과 한상기 박사뿐'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하며 웃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뿌듯하게 한 것은 농민들의 지지였다. 1983년 나이지리아 요루바족 이키레읍 주민들은 대관식을 열어 그를 추장으로 추대하고 세리키 아그베(Seriki Agbe)라는 칭호를 주었다. '농민의 왕'이라는 뜻이다. 오직 추장에게만 주는 옷과 지팡이 등도 선물했다. 41개국, 수억 명의 아프리카 사람을 살린, 그야말로 진정한 농민의 왕이었다.

사람들은 한상기 박사를 '농학계의 슈바이처'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한상기 박사와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박사가 만든 아프리카의 미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은 같지만, 한상기 박사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카사바 개량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 한상기 박사는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해 아프리카 각국의 농학자들을 훈련했다. 덕분에 농학 석박사 50여명과 농촌지도자 700여명이 배출됐다. 제자들이 다시 수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사람'이라는 이름의 우수한 종자는 아프리카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람을 구했고 노벨평화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전히 병마와 싸워야 했죠. 당시 그가 의료진을 양성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뿐 아니라 교육에도 힘쓴 것입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슈퍼 카사바를 만들어 보급했다는 것보다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훈련해 사회에 내보냈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한상기 박사는 훈련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농학자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내 지역 간 네트워크도 형성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먼 미래의 후손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1994년 1월,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 생활을 정리했다.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쓴 저서 「작물의 고향」과 박사의 일대기를 담은 동화책 「까만 나라 노란 추장」



추장에게 주는 부채, 한상기 박사의 이름과 '농민의 왕'이란 뜻의 '세리키 아그베'가 적혀 있다


1983년 나이지리아 이키레 읍 추장 대관식 모습. 한상기 박자(가운데)와 이키레 왕 오바(오른쪽)

사랑을 심은 자리에는 더 큰 사랑이 난다

2015년 한상기 박사는 40여 년의 기나긴 타국 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인터뷰와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세계 작물의 9대 기원 센터를 소개한 책 「작물의 고향」을 출간했다. 이 책은 러시아의 식물육종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Nikolai Ivanovich Vavilov)가 쓴 「재배 식물의 8대 발원지」를 참고하되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서부 아프리카를 포함했다.

한상기 박사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보릿고개는 익숙하게 찾아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굶주림이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다. 그만큼 농사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2021년 농가 인구는 221만 5,000명으로 1970년 1,442만 2,000명에 비해 84.6% 감소했다. 영농 형태 또한 변하고 있다. 논벼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 비중은 2021년 37.8%로 1985년 82.9%에 비해 45.1%P 감소했지만, 채소 위주의 농가 비중은 17.3%P, 과수 위주의 농가 비중은 12.9%P 증가했다. 농업 교육 역시 고부가가치 작물에 집중되고 있다. 한상기 박사는 이러한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주식인 '쌀'에 대한 관심이 옅어져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

"벼는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개량한 우리의 주식작물이었습니다. 쌀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죠.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같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식량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땅의 쓰임을 바꾸었을 때 그것이 우리 삶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상기 박사의 아들 내외도 치과의사로서 최빈국에서 의료 봉사를 펼치며 아버지이 뜻을 이어가고 있고 큰 사위는 농학자로 동남아 등 여러 최빈국에서 그 곳의 식량증산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사람'이라는 씨앗을 길러내는 교직원들에게 한 박사는 늘 조용한 응원을 보낸다. '잘해내고 있다'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다.

"은사이신 성천(星泉) 유달영 선생께서는 저에게 '가교사해 홍익인간(架橋四海 弘益人間)'이라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에 다리를 놓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이죠. 이 뜻이 교육 현장에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재가 많이 길러져 국가 발전, 나아가 세계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길러본 사람은 알 것이다. 기르고 돌보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잘 자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말이다. 한상기 박사는 이러한 믿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 위기에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종자를 남겨두었으니 분명 잘 자라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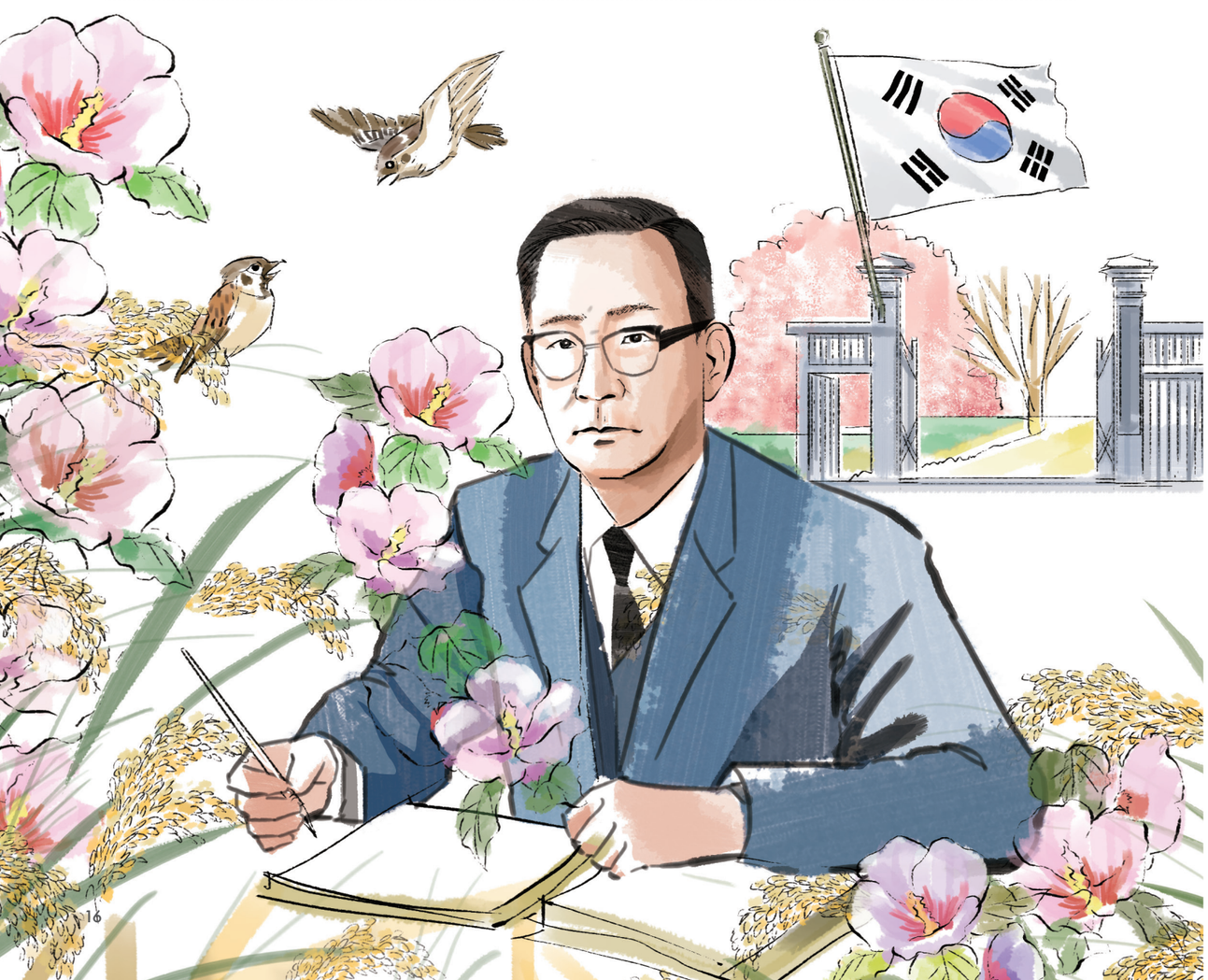
「역사 속 숨은 영웅」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남긴 교육자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코너입니다.

시대적 한계를 넘어 혁신을 이룬 한국 농업교육의 선구자 조백현 선생

일제강점기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앞장선 농학 연구자이자 농업 개혁가인 조백현 박사. 조백현 박사는 한국 농학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로, 3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수원고등농림학교와 서울대학교 농대에서 교편을 잡았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농학에 뜻을 둔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 또한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농학 교육의 기틀을 다시 세웠으며 해외 선진 농업을 도입해 한국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식품을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서 근대적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데도 이바지했다.

글 유정호 인천소방고등학교 역사교사

유정호 교사는 인천소방고등학교에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역사가 아닌, 쉽게 접근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구석 역사 여행」「1일 1페이지 조선사 365」「조선괴담실록」「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동네 독립운동가 이야기」 등 역사 관련 도서를 여러 권 출간했다.



선진국의 필수 조건은 '식량 자급자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곡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많은 밀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밀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그나마 생산한 밀은 수출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곡물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수입 밀 가격이 40% 넘게 폭등하면서 밀가루를 주원료로 만드는 빵이나 라면 가격이 대폭 인상됐다. 그래서일까? 197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가 "후진국은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으로 올라설 수는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한 말이 다시금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농업 선진국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는 광복 이후 농업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더 큰 비중을 둔 경제 정책을 이어왔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2021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그 대가로 농업 분야가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언론에서 수십 년째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농업인이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농업 발전에 힘을 기울여 식량 자주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일까. 평생을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조백현 박사(1900~1994)가 재조명되고 있다.

농업학교에서 얻게 된 학문 탐구의 기회



조백현(趙伯顯) 서울대 명예교수 (1900~1994) [출처: 과학기술유공자센터]

1900년 원수부 군무국장 조성근의 아들로 태어난 조백현 박사는 어려서부터 매우 허약했다. 또래보다 작은 체구 때문에 '좁쌀 사위'라 놀림당하던 유년 시절의 조백현 박사는 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진로였다. 그렇다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어길 용기도 없었다.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업전수학교에 입학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군인이 될 수 없으면 차라리 농사를 배우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수원농림학교에 입학했다. 수원농림학교는 고종이 경제발전 토대 마련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세운 근대 농학 교육기관이었지만, 그에게는 도망치고만 싶은 곳이었다. 수학을 좋아하는 학구적인 성격인 데다가 몸까지 약한 그에게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은 체력적으로도 큰 무리였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기회가 찾아왔다. 수원농림학교의 일본인 교장 혼다가 농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농림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시킨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일제가 대한제국의 식량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수원농림전문학교 1회 입학생이 된 그에게서 과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모습을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학, 수학, 물리학, 기상학 등 근대 학문을 배우는 그에겐 그전에 볼 수 없던 생기와 열정이 넘칠 뿐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변했다. 일제의 수탈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조선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백현 박사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일본 여러 대학이 수원농림전문학교의 학사과정을 인정하지 않아 그는 입학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규슈제국대학 농학부 창설위원장이 된 수원농림전문학교 혼다 교장이 입학시험을 볼 기회를 줘 농예화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독일에서 생화학을 익히고 온 오쿠다에게 지도를 받고, 한국인 최초로 생화학 분야에서 논문 「계란 부화에 따른 아미노산의 변천」을 발표한다.

한국 전통 식품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다

규슈제국대학을 졸업한 조백현 박사는 전문학교에서 고등

학교로 승격된 모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사로 한국에 돌아왔다. 교단에 선 그는 일제의 우민화 교육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 대부분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늘 끊임없이 연구하던 조백현 박사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학생들에게 당시 가장 선진적이면서 첨단 학문인 생화학, 발효학, 유기화학, 토양학 등을 가르쳤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조백현 박사의 수많은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산나물을 연구해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것이다. 그동안 영양가가 별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온 도라지, 고사리, 쑥, 참외, 질경이 등 산나물 열한 가지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며 산나물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 외에도 콩나물처럼 일상에서 자주 먹는 두아(豆芽, 물이 잘 빠지는 그릇에 담아 그늘에서 키우는 나물)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가 그동안 먹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선조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를 밝혀냈다.

이런 조백현 박사의 연구 활동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됐다. 당시만 해도 모든 집안이 직접 메주를 띄워 장을 담갔다. 그러나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제조 방법 때문에 썩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몸에 좋은 박테리아만 배양할 수 있는 개량 메주를 만들어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그 외에도 김치와 막걸리 등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자신이 개발한 종균 번식법을 보급했다. 그 결과 장과 김치 그리고 막걸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식품으로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조백현 박사의 가장 큰 업적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놓은 것이다. 1950~1960년대까지 우리는 봄철에 먹을 것이 없어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보릿고개를 겪었다. 그는 단기간에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시비법에 착안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도움을 받아 동위원소를 활용해 벼에 거름을 주는 방법 및 시기를 연구했다. 그 결과 벼꽃이 분화하는 시기에 벼의 표층과 하층에 시비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을 넘어 빈곤에 힘들어하는 여러 국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46년 당시
수원 농과대학 1호관 전경
[출처: 서울대학교 기록관]

농업 교육의 기틀을 세우고 선진 농업 기술과 지원을 이끈 영웅



서울대 농과대학 학장 집무실에서 조백현 박사 [출처: 과학기술유공자센터]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그의 탐구심 덕분에 한국 농업과 농업교육은 계속해서 발전해갔다. 한편 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 활동하던 조백현 박사에게 더 큰 뜻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다. 미군정청이 수원농림전문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조백현 박사에게 교장직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칠 교사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은 열악했다. 이런 환경에 굴복할 수 없던 그는 직접 동문을 찾아다니며 교사진을 확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1946년 수원농림전문학교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편입시켰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초대 학장이 된 조백현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농업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을 규합해 학술발표회와 농업 관련 논문을 기재한 「한국농학회지」를 발간했다. 더 나아가 한국식품영양협회와 한국토양비료학회 등에 가입하는 등 농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도에는 유네스코의 초청을 받아 유럽으로 토양학 연구를 위한 연수를 떠났다. 영국의 농과대학과 토양연구소를 시작으로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토양 연구 시설을 시찰했다. 선진 농법과 연구 시설을 익히기에는 너무도 짧은 8개월가량의 시간이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어려운 형편을 걱정한 그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는 부지런히 유럽에서 보고 온 선진 문물을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조백현 박사의 노력에 하늘이 감응했을까. 전쟁으로 피폐화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받은 미네소타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의 재건을 지원해 주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농과대학을 대표해 5개월간 미국의 대학과 연구 기관을 둘러본 조백현 박사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원받은 120만 달러로 농과대학 수원 캠퍼스에 신관 교사와 강당 등 여러 시설물을 세웠다. 그러고는 훌륭한 교수진을 양성하기 위해 농과대학 교수 40여 명의 미국 연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대 농과대학은 8개 학과에서 11개 학과로 늘어나며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서울대 학장단과 미네소타대학 수석자문관 (Fowler S, 1955년 1월 서울에서 촬영; 좌로부터 황영모 공대학장, 조백현 농대학장, Arthur E Schneider 수석 자문관, 이제구 의대학장) [출처: 서울공대 웹진]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은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

조백현 박사의 열정과 노력은 나이가 들수록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다. 환갑이 되어 1961년 학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연구와 강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66세에는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맡아 원자력청 산하 방사선농학연구소를 설립하고, 8년 동안 원자력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960년대 평균수명이 55세 전후이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1회 화농상 시상식 [출처: 과학기술유공자센터]

조백현 박사의 활동은 1986년 87세가 되어서야 멈췄다. 그렇다고 모든 활동을 멈춘 것은 아니다. 단지 현장에서 물러났을 뿐이었다. 그는 사재를 들여 화농장학회를 설립한 뒤 연구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화농장학회는 현재 화농연학재단으로 발전해 매년 농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에게 화농상을 시상하며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평생을 농학과 과학기술에 헌신한 그는 1994년 눈을 감았으며, 서울대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생명과학대 캠퍼스에 동상을 세웠고, 정부 역시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를 헌정하여 조백현 박사를 기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뿌리를 일궈낸 조백현 박사. 어찌 보면 전통 식품 학술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수훈한 대한민국 공로상(1961), 식량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훈한 문화훈장 국민장(1962), 농업 기술의 현대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훈한 수당과학상(1977), 또 사후 과학기술의 명예의전당 헌정(2006) 등은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해 약소한 것은 아닐까. Ⓚ



1967년 4월 12일, 원자력청 출범식에서 치사를 하는 윤일선 원장, 뒤쪽 왼쪽이 성좌경 초대 원자력청장, 오른쪽이 조백현 원자력 위원. [출처: 과학기술유공자센터]

교사 출신 김완기 사진작가가 소장한 1960~1970년대 전후 추억의 사진을 만나보는 「우리 어렸을 적에」 코너를 통해 향수 어린 그 시절로 세대공감 여행을 떠나 보아요.

방학 끝~! 새 학년, 새 출발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초,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운동장 애국 조회는 새 학기 학교생활의 시작을 알린다. 오랜만에 도서실을 찾은 학생들은 진지하게 독서에 몰입하는가 하면, 방학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우수과제 전시물들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감상한다. 한 학년씩 올라가는 학생들은 설렘을 안고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새로 만난 교실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아직은 낯설지만, 새로운 각오와 기분 좋은 기대가 함께한다. 담임 선생님과 익숙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서먹함이 사라질 때쯤이면 아이들은 반장 선거를 통해 반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들은 반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반 대표로서 임명을 받는다. 학생들의 희망찬 새 출발을 돕기 위한 그 시절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이 빛나던 3월의 풍경이다. Ⓚ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운동장 애국 조회 (1971)

새 학년이 되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애국 조회 시간을 갖는다.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각 반 담임 선생님을 발표하기도 한다.





전교·학급 임원 임명장 수여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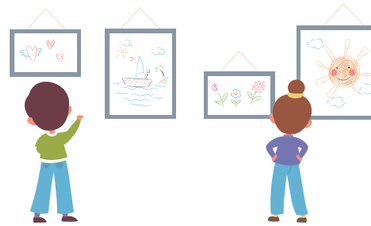
새 학년 새 학급에서 어린이들이 학급 임원을 선출하고, 전교어린이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면 교장 선생님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방학 과제 작품 전시회

(1971)

방학 과제물 중 우수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면 전교생이 관람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방학 생활을 되돌아본다.



하교하는 어린이 (1969)

새로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이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학교 도서실 독서 (1971)

새 학년 초가 되면 아이들은 학교 도서실에 몰려들어 책 읽기에 열중한다.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열며 새 꿈을 펼쳐 나간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분야별 석학들을 만나 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칼럼 「오늘의 학교」입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상,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제대로 배우면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융합기술과 만난 농업의 미래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강대구 교수**

과거 한국에서 농업은 일상과 밀접했다.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만 해도 농경사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도시에 살더라도 시골에 사는 일가친척을 방문하며 농촌의 일상을 접했다. 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농업을 공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화가 무르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요즘 학생들에게 농업은 익숙지 않은 분야다. 강대구 교수는 농업을 제대로 배우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글 정라희 / **사진** 김수





이제는 농업교육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아야 할 때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에는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학과가 있다. 바로 농업교육과다. 1983년에 순천대에 농업교육과가 개설될 무렵만 해도 농업교육과가 개설된 대학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1990년에 국립 사범대학 출신자의 우선임용제도가 위헌으로 판결 나면서 농업 교사 양성 정책에 변화가 생겼고, 7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농업이 선택교과로 바뀌어 농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중등학교에서 농업을 가르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강대구 교수가 졸업한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를 비롯해 각 대학 농업교육과가 개편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농업교육과에서 농업 교사만 양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농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도 이곳에서 배움을 쌓는다.

"아직도 농업교육과 하면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좁은 관점에서 작물의 특성에 관해 가르치는 것도 농업교육의 일부지만, 알고 보면 농업에서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분야가 존재합니다. 이들 직업을 알려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농업직을 준비하고 선택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농업 교사이고, 농업교육의 역할입니다."

농업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대구 교수에게 농업과 관련한 진로 확대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실제로 최근 농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물론 최신 트렌드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농축산물 관련 상품 개발 및 농기업 경영, 농기계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추세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대학에서 농업계 학과에 진학하지 않으면 농업 분야에 얼마나 다양한 진로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농업교육과 전공과목 중에 '직업·진로·설계' 과목이 있습니다. 2022년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수강 소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왜 중학교 때 농업에 관한 진로를 한 번도 말해 주는 교사가 없었는지 아쉽다'고 적은 거예요. 농업계에 이렇게 다양한 진로가 있는 줄 알았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농업계에 진학해 준비했을 것 같다고요. 생각보다 농업을 매개로 진출할 수 있는 진로가 무척 다양하거든요.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드무니 '농사=농부'라는 협의로만 판단하고 '농사는 힘들다'는 인식이 앞서죠. 그러다 보니 진로 지도뿐 아니라 농업 분야 인재 유입에도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농업에서 가지를 뻗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

기존 법령에서는 농업을 농작물 재배업과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한 산업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농업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농업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이 계속 늘고 있다.

"식물이나 동물자원, 생명공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농기계, 식품가공, 농산물 유통·정보·마케팅 등은 물론 농기업, 농촌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농업과 연계된 직업이 있습니다. 하물며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면 이를 만들거나 수리할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농산물 판매직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은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판매자를 더 신뢰합니다. 한국직업사전(work.go.kr)에서 '농업'을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직업은 60건입니다. 농촌, 식물, 동물, 농공, 조경, 농업경영, 농기업, 화훼, 산림, 식품 등 농업 관련 용어를 포함해 검색하면 더 많은 직업이 나옵니다. 융복합 직업도 꾸준히 나오는 추세이고요."

강대구 교수는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순천대에서 2020년 도내 농업 계열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래 Young農人(영농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 숙달 교육에서 벗어난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농직업 세계와 커리어 패스'에 대해 강의하며 학생들이 관심 있는 농직업 분야의 경력 개발

단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에 발표한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50선'에 따르면, 농업·농촌 유망 직업은 크게 '농산물 생산 및 지원 분야', '6차 산업화 분야', '농촌 삶의 질 분야', 'ICT 등 융복합 분야', '농촌 지원 서비스 분야', '국민 생활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8개 분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각 항목에 속하는 직업의 종류도 수십 가지가 넘어요. 기업에서 사원부터 사장까지 경력별로 직급을 구분하듯, 농업 역시 생산 농업의 초보 단계부터 중급 이상의 기술자와 경영인 등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함께하는 선진국형 일터 학습 정착 필요

강대구 교수는 제대로 된 농업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양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이 초·중등학교 단계에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 시절 농촌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지극히 익숙한 일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시골 생활을 경험한 비율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강대구 교수는 2000년경 당시 학과 교수와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인간과 농업'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했다. 교양과목 개설 후 첫 강의 시간에 60여 명의 학생이 모였는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 농촌에 한번 이상 가본 적이 없다는 학생이 7명이었다. 지방 도시인 순천에서도 수강 인원의 10%에 달하는 학생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농촌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농직업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도 연결된다.



교육대학원생과 광주자연과학고 방문




학부생들과 연구과제 스터디 모임 멘토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도 정책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교양으로서의 농업교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 방문교수로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주지사가 만든 농업교육지도자 재단에서 농업인과 일반 시민이 기금을 모으고, 농업교육과 지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전국적으로는 'Ag in the classroom'이라는 협의체가 각 주에서 교양교육으로 농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성인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립대학 시스템이나 평생학습 시스템도 정착되어 있고요."

강대구 교수는 "우리나라도 장학제도가 있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한다. 농업 교과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그는 "2015년부터 진행된 NCS 교육과정 적용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쉬움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농업의 현주소와 달리, NCS 적용 기준의 한계로 농산업 분야의 학습과 진로 다양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을 재배와 사육만으로 한정하려는 인식에 기인한다.


교사 학습공동체 워크샵 환영사

"실제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구조로 보면 농업과 연관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농가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작업을 해왔다면, 장기적으로는 생산시설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내 작업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스마트팜 같은 생산시설의 간단한 수리와 제어, 농지 토양의 조건이나 작물 상태에 따라 경운 작업을 제어할 수 있도록 GPS 정보 설치와 활용 기술까지 확장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도 현재 농업은 일부 작물과 재배 위주의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교육을 생각하며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로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농업계 학과 진학생 감소는 농업 교양 교육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강대구 교수는 "농업계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도 농업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탐색 없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각 대학의 학과 설치 역시 농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기를 끄는 학과 위주로 개편하는 경향이 크다.

한편으로 그는 특기자 선발을 입시에 악용한 일부 사례 때문에 FFK*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같은 전국대회 입상자들을 특기자로 선발할 경로가 사라진 점을 아쉬워했다. 농업에 관심과 역량을 지닌 청소년들이 지속해서 농업계 진로를 밟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관련 전국대회 입상자들은 이미 농업 분야에 열정도 크고 기초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대학 공부를 따라갈 기본기도 갖추고 있고요. 실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면 장기적으로 세대를 넘어 좋은 농업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농업 전문 직무 확대를 위한 연구를 놓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사업의 하나로 도시농업 모델 및 치유농업 기반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치유농업 창업 모델'을 설계하고 전문가 직무 모형을 개발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그는 더 많은 청소년이 농업에 대한 고급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적어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기회 가운데 농업이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

*FFK : 한국영농학생연합회 (Future Farmers of Korea)

우리의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혁신적으로 변화 중인 우리 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코너를 통해 함께 고민해 봅니다.

진정한 생태교육 학교 텃밭에서 시작된다

텃밭이 미래 교실인 이유



텃밭을 일궈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보는 생태교육은 고마운 식량을 직접 키워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정서교육에도 한몫하지만, 뜨거워진 지구 온도를 낮추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몇몇 학교들은 '학교 텃밭' 운영을 통해 손에 흙을 묻혀가며 채소를 길러 수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수확한 농산물로 장을 담그거나, 급식에도 제공해서 농업과 경제, 과학까지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학습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농업교육을 시행하고자 모인 '교육농협동조합'의 교사들은 농사 교육을 단순 체험이 아닌 일상에 젖어 들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생태교육이 디지털 기기에 빠져 사는 아이들에게 축복과도 같은 성취 경험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과정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교육임에도 교사들이 기꺼이 이 활동에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 김지윤 교육 전문 기자·前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기자



삶에 체화되는 농업 교육

예전에는 아파트 놀이터마다 흙이나 모래가 깔려 있었다. 30~40년 전만 해도 비가 오면 동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나가 땅 파며 놀거나 나뭇가지를 연필 삼아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그러다 보면 땅속에서 개미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왔다. 가끔 날개 잃은 꿀벌도 찾았다. 낯선 벌레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주변 흙으로 온갖 것을 다 만들어보며 자랐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며 개미, 지렁이, 땅벌레 같은 것을 봤다. 자연스레 자신의 시선을 발아래로 낮춰 볼 줄 알았다. 그러다가 주변의 풀들이 눈에 들어오면 꽃과 풀을 친구 삼아 재료 삼아 한참을 놀았다. 한데 요즘은 아파트 놀이터에도 흙이나 모래가 없다. 도심 속 아이들은 어린 시절 흙 한 번 만질 일 없이 자란다. 지금 아이들에게 흙은 어쩌면 '더러운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할까.

"땅에 씨앗 심고 손으로 잎도 다듬어주고, 자기가 정성 들여 직접 기른 채소를 보면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죠."

모두가 국어, 영어, 수학을 외칠 때 이보다 중요한 것이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라고 강조하는 교사들이 있다. '학교 텃밭'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생태 친화적 농업을 배우고, 농민의 삶을 경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업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교사들이 모인 '교육농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텃밭 농사가 단순 체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삶의 문화이자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 속 생태 텃밭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 교육을 위한 생생한 공간이자 '미래 교실' 그 자체라는 이야기다.





서울시 '학교 장독대 사업' 시범학교로 선정돼 장을 담근 서울잠현초등학교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해당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 구로구청에서 터를 빌려 텃밭으로 꾸몄다.

생태환경을 중시하고 서로를 아우르는 농촌 문화를 학교 울타리 안으로 가져온 텃밭 수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농부가 되어 작물을 수확하거나 자연을 소재로 시를 지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수확한 작물을 벼룩시장 같은 장터에 판매하는 경제 교육도 가능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과 물류의 개념도 자연스레 알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아이들의 삶에 체화되는 교육이기도 하다.

밥상에서 배우는 삶의 지식

먹거리는 언제나 아이들의 주요 관심사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환경·기후 문제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당장 오늘 점심 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 먹거리'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됐다.

부모 세대만 해도 '할머니 댁 장독대' 풍경에 익숙하지만, 아파트촌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요즘 '아파트 키즈(kids)'는 장독대가 뭔지도 잘 모른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사각 플라스틱 포장 속 완성된 고추장, 이미 포장된 쌀 포대의 모습에만 익숙하다.

하지만 영양교사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은 "식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아이들이 직접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콩이 메주가 되는 과정, 메주가 장이 되는 단계, 상추와 깻잎이 자라는 모습 등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보면 편식 습관을 바로잡기에도 좋다"라고 말한다. 기후변화 등 환경 교육까지 한 번에 가능한 것이 바로 '텃밭 교육'이라는 것이다.







5년여 전, 서울 아파트촌에 위치한 서울잠현초등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다. 이 학교는 아이들과 직접 장을 담그는 학교로 유명했다. 학교 한편에 자리 잡은 장독대에는 '잠현뜰'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당시 서울시 '학교 장독대 사업'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잠현초는 항아리와 메주, 소금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받아 학교에 장독대를 만들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등 다양한 장류는 1년 동안 발효·숙성 기간을 거쳐 깊은 맛이 나는 '잠현뜰 장'으로 거듭났다. 직접 장을 담가보고 텃밭을 가꿔본 아이들은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추장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줄 몰랐다. 직접 만든 장을 먹고 싶어 고추와 상추 등 채소도 더 많이 먹게 됐다"라고 말했다.

사실 아이들 먹거리와 급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입장에서 학교 장독대 사업은 번거롭기도 한 일이었다.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보장되고, 식중독 등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담근 장'을 실제 급식과 먹거리 교육에 활용하려면 맛은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했다. 그래서 당시 이 학교 학부모들은 '장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았다.

생태 텃밭과 더불어 학교 장독대는 환경 교육뿐 아니라 과학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었다. 다 함께 급식실에 모여 장을 담글 때 염도 맞추기, 장 가르기, 장의 발효와 숙성 원리 등을 함께 교육하니 아이들도 신기해했다. 아이들은 "고추장은 맵고, 된장은 색깔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콩이 차차 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재미있었다"라고 말하거나 "염도에 따라 장맛이 변할 수 있고,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게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땀 흘려 담그고, 노심초사 기르고 가꾸는 과정에서 생명 존중까지도 배우는 모습이었다.

꼬마 농부 위한 치유 텃밭

이러한 교육 효과들이 알려지며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 '꼬마 농부'를 위한 치유 텃밭을 일구기도 했다. 강동구 상일동 치유농업센터 일원에서 상추와 무 등 친환경 농작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까지 해볼 수 있는 텃밭을 운영한 것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종자와 모종을 각 2종씩 제공하고 단체별로 기간 중 2~3회 텃밭 전담 강사의 채소 재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소장은 "도심에서 자란 아이들이 텃밭 활동을 통해 농업을 체험하고 정서 순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친환경 치유 텃밭을 운영하게 됐다. 많은 어린이가 우리 농업을 친숙하게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텃밭으로 옮겨온 교실

앞서 언급한, 농촌과 학교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교육농협동조합도 텃밭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실로 만드는 모임이다. 우리 농업을 공부하고 배움을 나누는 교사와 농부,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었다. 이들은 "농업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과 가치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학교에 음악실, 도서실, 컴퓨터실, 운동장 등 다양한 공간이 필수적으로 있는 것처럼 교육농협동조합 교사들은 서로 힘을 합해 학교 텃밭이나 텃논을 만든다.

교육농협동조합 구성원들은 생명의 원천인 땅,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 그리고 농촌에 관해 함께 모여 이야기한다. 미래 세대에게 농업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길 중 하나라고 여긴다. 어쩌면 교육의 본질이 '한 인간이 평생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면, 농업 역시 '생존'의 영역이기에 농업 교육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농업에 관한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농협동조합 교사들은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 작은 빙하에 간신히 올라선 북극곰 같은 감상적인 환경 교육보다는 실질적 생태교육을 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구 생물들이 고통스러워하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관점보다는 생명과 생명 사이의 연결성, 선순환의 중요성 등을 알려 미래 세대가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생명 순환의 원리, '함께 살이'의 감수성, '나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는 이타성 기르기 등은 텃밭과 텃논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 텃밭을 일구며 자연스레 협동하고, 날씨와 환경을 관찰하게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생명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텃밭에서 아이들은 움직이고, 키우고, 한 끼 먹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흙과 풀로 이뤄진, 학교 울타리 속 텃밭이 미래 교실인 이유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의 탄생과 소멸을 노력과 시간을 들여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거리다. 학교 텃밭에 흩뿌려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오늘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작물들을 보며 아이들의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커갈 수 있다. 작은 스마트폰의 네모난 화면 속에서 유튜브 쇼츠(자극적으로 편집한 짧은 영상) 등만 반복적으로 터치하던 학생들은, 손에 흙을 묻혀보고 풀냄새를 맡아보며 살아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아이들의 세계는 한 층 더 풍요로워진다. Ⓚ



배움 더하기 미래 잡(job)자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미래 농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밀농업 전문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농업 혁신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농작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밀농업 시장은 2019년 55.6억 달러에서 2026년 128.4억 달러로 빠른 성장세가 전망[1]되며, 이에 글로벌 농업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주요 농업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미약한 편이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000년 55.6%에서 2019년 45.8%로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 적자액은 2020년 13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식량안보, 환경보존,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서 농업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혁신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무역 성장 동력을 찾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이끄는 정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미래 농업을 이끌 정밀 농업의 현황과 정일농업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비전과 방향성도 확인해본다.

1)자료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미래 기술과 만난 농업의 혁신, 정밀농업!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관리해 보다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자는 것이 정밀농업이다. 정밀농업은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각종 영양소와 농약을 살포해 가장 효율적으로 농업을 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밀농업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을 모두 잡으려고 한다.

전통 농업은 생산량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화학비료의 광범위한 이용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는 괄목할 성장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토양과 지하수는 오염되었고 사람들과 작물이 살아가는 환경은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작물의 수확량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밀농업의 개념은 상당히 오래전에 등장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밀농업을 실현할 기술이 열악해 실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정밀농업이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각종 스마트기기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드론, 각종 농업용 센서 등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도 높일 수 있다. 정밀농업 방식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비료나 농약을 쓸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 드론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은 본래 스마트농업이라고 부르며, 비교적 최근에 발전했다. 이미 오래전에 등장한 정밀농업 개념은 스마트농업 방식을 접목하면서 보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농업으로 등장한 셈이다.

가장 효율적·합리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여라

정밀농업 전문가는 정밀농업으로 작물을 키우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기술 전수와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정밀농업 기술자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효율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개발한다. 작물이나 흙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농사짓는 기술을 찾는다.

둘째, 정밀농업을 하려는 농민에게 농업기술을 교육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셋째, 정밀농업에 필요한 기계를 관리하고 농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넷째,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과 기후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농민에게 제공한다.

정밀농업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밀농업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 농업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이 모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해야 한다.

대학의 농학과, 농업생물학과, 식물자원학과 등에서 농학 관련 전공을 선택해 공부하면 정밀농업 기술자가 되는 데 유리하다. 최근 몇몇 대학에 개설된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바이오식품기계공학부 등은 정밀농업과 관련한 기술과 장비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농업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정밀농업 기술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정밀농업에서는 각종 장비와 농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는 농업기계기사, 유기농농업기사, 시설원예기사 등이 있다.

환경을 고려하고 데이터를 중시하는 정밀농업의 미래

정밀농업이라는 개념은 약 100년 전에 나왔다. 과거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산량만 늘리려고 농약과 비료 등을 남용하면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과 우리 건강을 생각해 꼭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자는 것이 정밀농업이 추구하는 것이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밀농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정밀농업을 위해서는 토양이나 작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드론과 각종 센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느 때보다도 정밀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정밀농업이 보다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밀농업은 새로운 농업의 미래로 손꼽힌다. 과거 농민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었다. 정밀농업에서는 숫자로 된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다. 정밀농업을 제대로만 학습한다면 누구든지 농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꿈 너머 꿈」은 현업 활동과 더불어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 넘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나눔의 배를 타고 꿈의 바다로

아꿈선 연구회 **조민호·곽남지 교사**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다. 대가 없는 나눔이, 조건 없는 도움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아꿈선'은 교육격차 해소를 꿈꾸며 2018년 돛을 올린 교사 연구회다. 초등과학을 중점으로 한 여러 교육자료를 전국 교사들이 스스로 제작하고 제공한다. 조민호 교사와 곽남지 교사는 아꿈선의 2023년을 이끌 리더들이다. 서로의 선량함에 닻을 내리고, 그들은 꿈을 향한 항해를 날마다 처음처럼 해나간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교육격차 없는 사회를 꿈꾸는 교사 연구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서로를 물들이고 서로에게 스며드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서 만족감을 얻는지 지켜보는 것도 한 사람의 삶을 엿보는 좋은 방법이다. 기쁨을 얻는 바로 그쪽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꿈선은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이란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소망 하나 가슴에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날들. 좋은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을 뿐인데 팍팍했던 일상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있다.

"아꿈선은 교육격차 해소를 꿈꾸는 교사 연구회예요. 태어난 곳은 달라도 교육받을 기회는 같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국 교사 100여 명이 양질의 교육자료를 스스로 제작해 제공합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학생들을 위한 과학 실험 영상과 교사들을 위한 과학 수업 PPT 자료를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초등과학으로 시작해 현재 다른 과목의 학습 자료도 공유 중이에요."

새 회장을 맡은 김해 수남초등학교 조민호 교사의 말이다. 그가 아꿈선 연구회의 2023년 회장으로 선임된 건 지난 2월 4일의 일이다. 아꿈선의 각 지역팀 가운데 경상팀을 이끌어온 그에게 '전국' 지휘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매우 부담되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창원 대방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중인 곽남지 교사는 아꿈선 특수교육팀장 겸 인사복지 이사를 맡고 있다. 회원들의 복지를 세심히 살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생일 축하부터 발령 축하, 각종 경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기쁨과 슬픔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스마트폰 메신저의 예약이나 알림 기능을 활용해 회원들의 기념 일정을 정리해 둬요. 선생님들의 '행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바쁜 와중에도 기쁜 마음이 들어요."

서로의 선량함에 물들다

조민호 교사와 아꿈선의 인연은 2019년 봄에 시작됐다. 그 무렵 아꿈선에서 먼저 활동하던 교사 친구가 자신이 근무 중이던 학교로 전근을 왔고, 그 친구의 영상 제작을 도우면서 자연스레 아꿈선에 합류했다. 조민호 교사는 영상 제작을 특별활동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영상 다루는 법을 익힌 것이 아꿈선 편집팀장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돼줬다.

아꿈선은 초대 회장 한도윤 교사(무안 청계초등학교)의 따뜻한 상상에서 비롯됐다. '주변에 과학 학원이 없는 시골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과학 실험 영상을 제공하면 어떨까?' 2017년 1월 한도윤 교사는 홀로 품어온 그 상상을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동창 3명과 실천에 옮겼다. '아꿈선 초등 3분 과학'이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 전남 지역 초등교사들의 과학 실험 공유로 출발한 아꿈선은 2018년 10월 아꿈선 1기 회원을 모집하면서 전국 규모의 교사 연구회가 됐다. 조민호 교사가 아꿈선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반년 뒤의 일. 초심으로 가득


과학 교과 영상 촬영 모습



교육 격차 해소를 꿈꾸며 2018년 닻을 올린 교사연구회 '아꿈선'. 같은 꿈을 가진 전공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했던 교사들의 열정이 그의 뇌리에 여태 생생히 남아 있다.

"저는 2021년 봄에 아꿈선 회원이 됐어요. 우연히 교사 모집 공고를 봤는데, 거기에 그간 아꿈선이 활동해 온 내용이 요약돼 있더라고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선량함에 물들고 싶어 기꺼이 지원했죠."

곽남지 교사는 그때 본 공고의 마지막 문장을 잊지 못한다.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라면 당장 들어오라'는 내용이었다. 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가슴이 뜨거워져 아꿈선에 들어왔고, 여태 뜨거운 가슴으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아꿈선 회원이 된 그는 일과를 마친 교사들이 피곤함도 잊은 채 밤늦도록 영상 회의를 하던 날들을 벌써 그리워한다.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아름다운 고민을 함께 나눈,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유쾌한 열정으로 교육과 재미를 모두 섭렵

아꿈선 회원들은 거의 모두 과학 실험 동영상을 제작한다. 두 사람 모두 잊지 못할 일화가 있다. 조민호 교사는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해줄 방법을 고민하다 아꿈선 경상팀 교사 4명과 색깔만 다른 티셔츠(빨강, 노랑, 검정, 파랑, 하양)를 각각 입고, 옷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다. 인파가 수시로 오가는 바닷가 관광지에 꽤 오래 서 있어야 했다. 쑥스러워 비지땀을 흘렸지만, 퍽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다.

"아이들이 그 영상을 참 좋아해요. 예상한 대로 검은색 옷이 가장 빠르게, 흰색 옷이 가장 늦게 온도가 오르더라고요. 말로 가르칠 때보다 그 효과가 확실히 크죠."

곽남지 교사는 첫 실험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독히 더웠던 어느 여름날 창원의 한 수목원에서 특수학교 학생용 과학 교과 내용을 촬영해 왔는데, 돌아와 컴퓨터를 켜니 매미 울음소리만 가득 담겨 있었다. 결국 오디오를 다시 입혀야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지만, 언제 떠올려도 웃음이 난다.

"제가 출연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요. 흥미를 유발하기에 더없이 유리하죠. 초등학교 교과 내용에 맞춘 실험 영상들이라, 미리 보고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 학습 지도에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조민호 교사의 말에 곽남지 교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곽남지 교사는 특수교육의 꽃을 '개별화 교육'이라 표현한다. 아이들의 특성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다. 특수교사인 그에게 아꿈선의 과학 동영상은 여러모로 큰 힘이 된다. 시각적인 자료가 다양하게 존재하니, 아이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옷 색깔 온도 변화 실험


아꿈선 글로벌 영상 촬영 모습

'국경 없는 교사회'를 꿈꾸며

아꿈선 연구회는 학습 관련 자료 외에도 많은 것을 개발하고 공유한다. 새 학기 자료 키트(kit)며 각종 계기 교육자료, 달력 배경 화면에 이르기까지, 현직 교사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만들어 흔쾌히 나눈다. 자신이 직접 개발하거나 타인이 개발한 것을 활용하면서, 두 사람 모두 교사로서 개발자로서 나날이 성장해 간다. 나눔은 '자람'의 다른 말이다. '꿈'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아꿈선의 목표는 '국경 없는 교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전 세계인과 활발히 공유하게 되기를 그들은 소망한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선 듯하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줘 고맙다는 외국어 댓글이 심심찮게 달리고 있다.



지역 아카데미 경남

"아꿈선의 최종 목표는 해외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2020년 6월 금성출판사와 과학 실험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며 생긴 수익금도, 2020년 말 교보교육대상 미래교육콘텐츠 부문 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도 학교를 세우는 데 쓸 겁니다."

교보교육대상 미래교육콘텐츠 상금 중 일부는 소아암 환아들에게 기부한 아꿈선 연구회는 2018년부터 광주 무등육아원과 신안 흑산초등학교에서 '8월의 과학 크리스마스'라는 실험 봉사를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엔 아이들이 조립할 수 있는 과학 실험용 키트를 편지, 선물과 함께 보내왔다. 올해는 직접 만나게 되기를 두 사람은 손꼽아 기다린다.

"우리에겐 함께 꾸는 꿈이 있어요. 그 끝에서 무얼 만나든,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불어 같이 나아가길 바라요."

아꿈선의 로고는 '배' 모양이다. 나눔의 바람을 타고 꿈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타고 있는 돛단배에 봄날의 햇살이 환하다. Ⓚ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쉼 없는 도전을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배움 더하기 고민 상담소

생애주기 중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바로 4050세대입니다. 「고민 상담소」는 책임은 막중하나, 위로를 받기 어려운 4050세대들이 가진 가정·직장 내의 고민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실패를 예측하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무기력

새 학기, 우리 아이 마음에 건강한 희망 심기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매사에 의욕이 없는 아이를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나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무기력한 아이의 모습에 부모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망감과 조급함, 그리고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섣불리 아이를 다그친다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혹시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무기력한 아이의 마음과 걱정 많은 부모의 마음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글 박재원 부모 교육 전문가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낮은 학업 효능감

무기력은 일반적으로 반복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즉, 못할 것 같은 생각에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악순환이 되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자신도 엄두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열정과 동기는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의 성공과 실패는 주로 학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비롯해 성적에 대한 압박, 진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해야 할 숙제들은 매일 쌓이는데, 성적은 늘지 않고 부모님은 늘 더 많은 공부를 요구합니다. 스스로 성적 욕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공부에 대한 상처와 낮은 성취감이 무기력에 이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된 실패에 주눅이 든 아이의 마음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나 슬럼프를 경험하며,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좌절감이나 슬럼프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무기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역시 한 번 이상 무기력을 학습하고 나면 그다음에 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의 감정이 미래에 대한 상상을 지배해 내일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과잉 열망에 압박을 받은 아이들은 제대로 시도도 하기 전에 실패를 예측하고 '어차피 난 안 돼...'라는 좌절감과 무기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라고', '더는 그런 꼴 볼 수 없다'라고 아이에게 결심과 결단을 촉구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따름입니다.

위로가 아닌 채찍질에 더 좌절하는 아이들

한 여학생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 얼마 전 시험을 망쳐서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가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라는 말을 해주시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꾸짖음을 듣고 나니 다 나 잘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이왕이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으련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결국 무기력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학부모 문화'라는 사회적 요인을 지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연구('학부모 문화 연구',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교육 지향성', '엄마 주도성', '성적 지향성', '정보 의존성' 문화를 충실히 따른다고 합니다. 이런 지배적인 학부모 문화가 부모들의 마음에 스며들면 아이의 무기력은 부모를 무능하거나 실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성취의 시작이 자발적인 동기 부여인 것을 생각하면 부모는 좀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무기력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태도 지적이 아닌,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기력의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욕구를 회복하고 공부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불씨를 되살리기

우선 무기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무기력을 겪는 아이에게는 화를 내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살아 있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보고 싶은 걸 찾을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부정적인 예측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녀가 원하는 방향이나 하고 싶은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믿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기력은 스스로 '할 수 있구나'라는 성공 경험이 쌓이게 될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실패한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는 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해야 어떤 일이라도 시작할 마음을 갖고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무기력감을 나타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배움 더하기 인생 이모작

「인생 이모작」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제2의 삶을 알차게 설계하고, 행복을 찾는 퇴직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매직으로 일로매진(一路邁進),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펼칩니다

마술하는 퇴직 교사 노상원 회원

마술은 기술과 예술의 합이다. 고도의 손재주가 필요하고, 음악이나 미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나눔'이기도 하다.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37년간의 교사 생활을 끝으로 2017년 퇴임한 노상원 회원은 은퇴 후 시작한 마술을 통해 기술과 예술, 봉사의 숲을 누빈다. 익혀도 익혀도 끝이 없다. 속절없이 당하고도 아무도 화내지 않는 '속임수'를 위해, 그는 오늘도 기꺼이 연습의 어려움을 즐긴다.

글 박미경 / **사진** 김성진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마술로 다시 맞이한 인생의 봄날

초인종을 누르니 연미복을 입은 신사가 현관문을 연다. 목엔 나비넥타이를 매고, 얼굴엔 미소를 머금은 채다. 가슴엔 '마술사 노상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 자신을 쉽게 소개하기 위해 무대복마다 달아둔 소통의 이름표다. 그의 손 위로 날아드는 비둘기 '사랑이'는 그와 교감하며 협업하는 마술 동료이고, 방과 거실을 가득 메운 색색의 물건은 그의 손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마술 도구다. 단지 집안에 발을 들였을 뿐인데 이상하고 신비로운 마법의 세계로 불쑥 들어와 있다.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해요. 익혀도 익혀도 끝이 없어요. 싫증 나기는커녕 배울수록 더 흥미로워요."

그가 교직에 몸담은 건 198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다. 37년간 그런 것처럼 그는 요즘도 '배움'과 '가르침'을 함께 한다. 틈틈이 배우고 짬짬이 익히면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에서 마술을 가르친다. '나눔'도 실천 중이다. 마술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온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후딱 지나간다. 은퇴 이후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통념은 그의 현재와 매우 거리가 멀다.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 아내와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곳곳을 여행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나눔의 감동

그의 삶에 마술이 들어온 건 2017년 9월 부산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다. 2017년 2월 울산 성안중학교 수석교사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했으니, 은퇴한 지 반년 만에 자신의 길을 찾은 셈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기술·화공 과목을 가르친 그에겐 고도의 손재주가 필요한 마술이 유독 잘 맞았다. '눈속임'의 기술이 늘수록 마술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6개월 남짓의 교육을 마친 뒤 그를 포함한 15명의 교육생은 '울산신중년마술협회'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후 부산연금관리공단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지도한 정지희 마술사를 별도로 초빙해 함께 마술도 배우고 서로 우정도 나눠왔다. 그들 우정의 중심에는 '봉사'가 있다. 이들 15명은 몇 개 팀으로 나눠 지역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마술 공연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활동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다시 시작했다. 잊고 있던 나눔의 감동을 처음처럼 다시 느끼고 있다.

"요즈음은 '코리안 매직 마술봉사단'이라는 봉사단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윤해권 마술사님께 4년째 따로 마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코리안매직의 대표님이거든요. 마술은 대표님과 제가 맡고, 우리 팀 소속인 웃음치료사 한 분과 외부에서 초대한 가수 두 분을 모시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울산정주간보호센터'에서 나눔 공연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

들의 힘찬 박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큰 기쁨을 느껴요.”
다시 교사가 된 것도 그를 기쁘게 한다. 2018년 울산 용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그는 중산초등학교, 척과초등학교 등에서 방과후교실 수업으로 마술을 지도하고 있다. 울산 백합초등학교와 연암초등학교에선 돌봄교실 수업으로 놀이체육을 가르치는 중이다.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가 더 신이 난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땐 음악과 미술, 조명 등을 활용하는 스테이지 마술을 선보이지만,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땐 카드나 동전 등을 이용하는 클로즈업 마술을 주로 한다. 각각의 매력이 달라 그때마다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다.
매력은 달라도 보람은 같다. 잠시나마 모두를 미소 짓게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있다. 그 때문이다. 그는 마술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늘 기꺼이 수락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공연하기도 하고, 울산 내 고등학교 축제나 울산 지역 행사에서도 흔쾌히 마술을 선보인다.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도 심심찮게 한다. 모이기만 하면 웃음이 샘솟으니 한낮에도 마음에 별이 뜬다.







작게라도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청춘

“젊은 시절부터 활동적인 편이었어요. 무언가를 배우는 걸 워낙 좋아했죠. 대학 시절엔 대금산조 인간문화재 강백천 선생님께 1년간 대금을 배웠어요. 40대엔 하남 이창조 선생님께 시조창을 배웠고요. 운동도 다양하게 접했어요. 테니스, 검도, 해동검도, 기체조…. 일련의 활동이 교사 생활에 큰 활력소가 돼주더라고요. 학교에선 보이스카우트 지도를 오래 했어요. 학생들과 몸으로 부대끼는 걸 좋아한 덕분에 격의 없이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무엇이든 꾸준히 시도하는 그였기에, 학생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해줬다. “10대 노인이 되지 말고 100세 청년이 되어라.” 그 문장은 그대로 그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작게라도 목표를 정하고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삶. 크게 성공하거나 대단하게 이루지 못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청년이라 그는 믿는다. 지난해부터 그에겐 ‘대한민국청춘마술연합회 울산지회장’이란 직함이 추가됐다. 마술을 만난 뒤로, 그는 글자 그대로의 청춘을 살고 있다.
“2017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스포츠건강학과에 입학했어요. 5년 만인 지난해 마침내 졸업했죠. 배움의 기쁨을 새삼 느낀 시간이었어요.”
대학에 다시 입학한 건 은퇴 직후였지만, 웃음치료사 공부는 퇴임 3년 전부터 시작했다. 은퇴 후의 직업으로 웃음치료사를 소망한 그는 그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웃음치료와 관련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갔다. 그 결과 그에겐 40개가 넘는 자격증이 생겼다. 웃음치료사,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스포츠지도사, 평생교육사…. 남들에게 제대로 된 웃음을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그를 엄청난 자격증의 소유자로 만든 것이다. 사실 자격증 개수는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소중한 건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한 기억,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느낀 작은 성취감 같은 것들이다. 경쟁이 치열해 결국엔 웃음치료사의 길을 접었지만, 그 덕분에 얻은 것이 그는 참 많다.



무지개빛 전성기가 지나가고 찾아온 장미빛 황금기

최근의 성취감은 대개 마술로 얻은 것들이다. 2019년 국제매직컨벤션 프리미엄부문 우수상을 시작으로, 그는 2020년 같은 대회의 같은 부문 우수상과 피플초이스 동상을, 2021년에도 같은 대회 같은 부문 우수상과 유지야 스다 특별상을, 2022년엔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2022년엔 두 개의 큰 상을 더 받았다. 제1회 대한문화예술제 전국대회와 제16회 영호남문화예술축제 전국대회 마술 부문에서 모두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제 그의 꿈은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는 것이다. 꿈이 거기에 있으니 오늘도 기꺼이 연습의 어려움을 즐긴다.
“은퇴를 앞둔 교사분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미리 찾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말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퇴직하기 전에 찾아보길 바라요. 그걸 찾고 나면 자기만의 작은 목표를 정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어떤 천직도 그게 ‘직업’인 이상 그 일을 진정으로 즐기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순도 높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은퇴 이후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란 생각이 드네요.”
그는 오늘 장미 마술을 연습 중이다. ‘장미꽃 한 송이’라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꽃과 공과 천으로 여러 기술을 익히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생겨난다. 무지갯빛 전성기가 지나면 장밋빛 황금기가 온다고, 그가 말이 아닌 손으로 증명하는 듯하다. Ⓚ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서는 여행이 간절하기만 요즘, 익숙하다고 생각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숨은 명소와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봄추위 속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섬진강 변에 구름처럼 퍼져가는 매화

전남 광양 매화마을

경칩이 지나고 개구리가 깨어날 무렵 섬진강 변 매화마을의 무수한 꽃은 하얀 구름이 산허리를 포위하듯 사위를 둘러싼 채 꿈결 같은 풍경을 내어 보이기 시작한다.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 새봄을 알리는 매화 군락지를 산책하노라면 겨울 그림자는 어느덧 저 멀리 사라져버릴 것이다.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 제공** 광양시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비,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매화마을 장독대

눈 속에서도 꽃 피우는 군자의 꽃 '매화'

온갖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화를 시작하는 매화는 예로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꼽히며 인격의 완성을 이룬 군자(君子)를 빗대어 이르는 소재로 이용되고는 했다. 뜻밖에 내린 하얀 눈 속에서도 독야청청 홀로 꽃을 피우는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은 선비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지조와 절개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명시인 소동파, 왕안석의 작품 등에서도 매화를 종종 다뤘으며,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도 매화를 사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화가 만발한 청매실농원 전경

바로 이 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곧 봄을 맞이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남도의 젖줄 섬진강을 따라 봄소식이 전해지는 고장 광양에서 매화와 함께 가장 먼저 새봄이 열리는 장소는 다압면 매화마을이다. 그중에서도 섬진강 유래비와 수월정(水月亭)이 자리하는 다압면 도사리 일원의 청매실농원은 강변을 따라 구름처럼 피어나는 매화가 연출하는 화사한 풍경으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이순신대교 등과 함께 '광양 10경'으로 인정받은 명소다.

옻비산 자락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청매실농원은 수천 그루의 매실나무가 피워 올리는 새하얀 매실 꽃으로 치장한 채 꽃구경 나온 상춘객을 맞이한다. 이르면 2월 말부터 꽃이 피는 청매실농원은 1965년에 심은 매실나무 2,000주로 시작된 농원으로 현재 광양시에서 가장 이름난 관광 명소이다. 호남정맥의 백운산에서 가지 쳐 나온 옻비산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청매실농원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틔워 새봄을 알리는 전령은 홍매화다. 청매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보다 조금 일찍 개화하는 홍매는 마치 붓으로 진분홍 물감을 뿌린 듯 청매와 금매 사이에 새초롬한 자태로 숨어 산자락 곳곳을 곱게 물들인다.

섬진강 변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봄꽃의 향연

면적이 무려 30만㎡에 달하는 청매실농원은 제대로 마음먹고 부지런히 걸어서 한 바퀴 돌아도 한 시간은 족히 걸릴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게다가 사랑, 낭만, 소망, 추억 그리고 우정 등 다섯 가지 테마별 탐방로를 모두 돌아보려면 그보다 넉넉히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섬진강 둔치에 마련된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동해야 하므로 가능한 이른 아침에 방문하는 편이 좋다. 청매실농원 곳곳에는 전망대를 겸하는 포토존과 함께 매화문화관, 장독대와 휴게실, 영화 촬영지, 은행나무 집 등 농원 측에서 조성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벼락바구, 얼굴바구, 행도바구 등 독특한 형태의 커다란 바위도 볼 수 있다.

매화마을에서는 지자체와 마을 주민의 주도로 매년 매화축제가 열린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호전되어 4년 만에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축제의 주제도 그에 어울리도록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로 정했으며, 축제 기간은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으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홍쌍리 명인의 쿠킹 클래스, 관광객과 함께하는 광양 맛보기 등 기존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광양시청과 매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축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옥룡사지 동백나무숲


백운산자연휴양림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

천년 고찰의 흔적 남은 자리에 붉게 맺힌 꽃봉오리

'화무십일홍'이라 하지 않던가. 아름다운 꽃과 함께 피어나는 봄날은 찰나처럼 스쳐 지나간다. 새봄의 아름다움을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번에는 도선국사의 숨결이 서린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을 찾아가 보자. 광양의 진산 백운산 서쪽 자락에 자리한 옥룡사는 통일신라 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당시 심었다고 알려진 동백나무 1만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겨우내 조금씩 피고 지기를 반복하다가 3~4월에 만개하는 동백은 떨어지는 꽃송이가 마치 붉은 주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년 고찰은 흔적만 남긴 채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동백나무 숲은 남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되어 있는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 사이로 절터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완상하며 붉은 동백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자.

옥룡사지 인근에는 청정 숲의 백미를 맛볼 수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이 기다리고 있다.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 아름드리 수목이 어우러져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일부러 조성한 인공림과 천연림이 조화를 이뤄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산막, 숙박동, 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물론 삼림욕장 선베드, 황톳길, 잔디 광장도 갖추고 있어 여행자를 위한 숙소이자 자연학습장, 그리고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로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남해안 최고 전망대

광양은 한려수도의 수려한 풍경을 거느리고 있는 여수시, 남해군 등지와 인접한 바닷가 고장이다. 광양만 앞바다의 장엄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구봉산전망대에서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어떨까. 호남정맥의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백운산에서 뻗어 나온 능선의 하나인 구봉산은 과거 봉수대가 있던 자리에 조성한 전망대로 전 세계 유일의 디지털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광양시를 상징하는 빛, 철, 꽃(매화)을 형상화해 제작한 봉수대의 형태는 피어나는 매화의 생명력을 의미하며, 꽃잎은 12개 읍면동을 의미한다. 봉수대의 높이는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 광양으로 개칭된 역사성을 고려해 940cm 높이로 건립했다. 디지털 봉수대 상단부에는 LED 조명등과 투광등을 설치해 야간 경관성을 살리면서 광양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봉산은 해발 471m 높이로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바닷가에 위치한다는 특성 때문에 순천 검단산성과 왜성, 광양제철, 마로산성 그리고 광양 읍내까지 동서남북 거칠 것 없이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전망대 인근까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 힘들여 등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잇는 별 헤는 다리

마지막으로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한 망덕포구에서 매화꽃 나들이의 대미를 장식해 보자. 구봉산전망대에서 자동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망덕포구는 섬진강 물길이 끝나는 지점이자 소설가 김훈이 극찬한 섬진강 자전거길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먼 옛날 모래강, 다사강, 두치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 섬진강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감지한 두꺼비 떼가 힘차게 울어 남도를 수호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두꺼비 나루강'이라는 뜻을 지닌 섬진강(蟾津江)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배알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두 다리 중 하나는 '별 헤는 다리'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망덕포구 인근에 시인 윤동주의 유고를 보관하던 장소가 있었던 데서 착안한 이름이라고 한다. Ⓚ


구봉산전망대

광양의 산과 강, 바다가 내어놓은 먹거리



조선시대 천하 일미 광양식 불고기

광양식 불고기는 그 역사가 제법 오래된 토속 음식이다. 조선시대 광양읍성 바깥에 정착해 살던 김해 김씨 부부가 귀양 온 선비들에게 아들의 글공부를 맡겼는데, 부부는 그 보답으로 송아지나 암소를 잡아 양념한 뒤 구리로 만든 석쇠에 올려 숯불구이를 해 대접했다. 바로 이 음식이 광양식 불고기의 원형이다. 광양식 불고기는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부위를 얇게 썰어 양념하는 만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여기에 백운산 참나무로 만든 참숯으로 불을 피워 화로에서 구워야 제대로 된 광양식 불고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광양 읍내에 있는 매실한우(061-762-9178), 삼대광양불고기집(061-763-9250) 등에서 광양식 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섬진강이 낳은 영양 만점 먹거리 재첩국

남도의 젖줄 섬진강이 낳은 유명한 먹거리로 은어와 참게, 재첩 등이 손꼽힌다. 그중에서도 재첩은 숙취 해소는 물론 황달, 간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건강식 재료. 2~4월이 제철인 재첩은 민물조개의 일종으로 섬진강 하류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통 국이나 회무침으로 먹는 재첩은 칼슘과 인이 풍부해 간을 보호하고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식으로도 적합하다. 재첩을 넣고 끓여낸 뽀얀 국물에 부추를 넣어 먹는 재첩국은 자극적인 음식에 길든 현대인에게 섬진강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모은정(061-763-0664), 섬진강뚝배기재첩식당(0507-1355-2633) 등의 전문점에서 제철 영양식 재첩을 맛보자.



「자산어보」에 기록된 바다 먹거리 붕장어



평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장어구이는 대부분 민물장어로 만든다. 민물장어는 바다에서 나지만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5~6년쯤 살다가 성체가 되면 다시 바다로 나가 알을 낳는다. 반면 아나고, 붕장어로 불리는 바닷장어는 바다에서 나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는 바다 생물이다. 붕장어라는 이름은 이미 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실학자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에는 해대려(海大鱺)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속명을 붕장어(弸張魚)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광양에는 자연산 붕장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수십 곳에 달할 정도로 장어구이의 인기가 높다. 광양시청이 위치하는 광양시 중동과 광양시청 제2청사가 있는 광양 읍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붕장어 숯불구이 전문점을 찾을 수 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쉬이 미루기 마련입니다. 「마음쉼」은 놓치기 쉬운 우리 마음이 보내는 적신호를 발견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코너입니다.

새 학기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온 3월
번아웃(Burn-Out) 예방과 관리

3월은 1월만큼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달인 듯합니다. 교사로 갓 부임했을 때는 새내기 교사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 설레곤 했는데 어느새 경력이 쌓이다 보니 설렘보단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벌써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불안과 긴장감은 나를 감싸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종종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기도 하며,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는 심리적 소진(Burn-Out)을 예방하고 정서적 웰빙(Well-being)의 상태로 지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글 (주)다인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번아웃

교사들의 번아웃(Burn-Out)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행정업무, 학습 준비,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 간의 관계 갈등, 학교 문화 등 많은 일들을 다루어야 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으로 다양한 수업 방식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이를 적응하고 적용하는 긴 시간과 업무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 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교사의 번아웃을 '교육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및 전문적 심리적 자원을 소진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더불어 '많은 교사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개선할 방법을 찾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며, 이러한 특성들은 칭찬할 만하지만 교사들의 완벽주의로 인해 휴식과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교사들의 업무로 인한 번아웃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에너지가 소진되면 무기력·우울·불안 등 부정적 감정과 수면·식이장애, 호흡곤란 등 신체화 증상도 동반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번아웃 상태인가?

단순히 피로감과 우울감으로 번아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감정이 지속적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커질 수 있습니다.

▶**피로와 수면** 하루 종일 학생을 가르치면 누구나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몸에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곤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수면장애를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낮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집중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루의 피로감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식욕과 체중** 식욕이 없어 급격히 체중 감소하거나 무분별한 폭식으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의 변화는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불안하거나 우울,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이러한 마음을 피한다면 불안장애·우울장애와 같은 감정 장애를 겪게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과 사생활의 경계선 설정



교사의 번아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떠난 시간에는 더 이상 교실 안은 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취미나 운동하기



아직 취미가 없다면 찾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즐거워했는지 생각하며 찾아보세요. 새로운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휴가 보내기



산과 바다 같은 야외로 떠나도 좋고, 집안 가장 편안한 곳에서 영화나 책을 봐도 좋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쉼을 불어넣어 보세요.

주말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월요일이 두려워 주말 내내 업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말은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충전의 시간을 갖고 활기찬 한 주를 위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 보세요.

심리·사회적 발달 관계를 정립한 정신분석가 에릭 에릭슨은 '풍요롭고 충만한 삶은 일(Work), 놀이(Play), 사랑(Love)이 세 가지가 내적으로 균형을 갖출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놀이와 사랑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놀이와 사랑조차도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럼 올 한 해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일, 놀이, 사랑 세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 모두가 함께 삶이 더 풍요롭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The-K 마음쉼」 이용 안내 ♥



-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 : 1 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쉼 홈페이지 ▲

「The-K 예방의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의 식습관, 운동 처방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즌별, 연령대별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건강 상식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봄철만 되면 간지럽고 빨간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법

따뜻한 봄이 오면 얼굴을 내미는 '꽃'은 몸을 움츠리게 만들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이다. 하지만 모두가 봄꽃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 봄은 곤혹스럽다.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접촉했을 때 생기는 과민반응으로, 몸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대개 염증반응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다. 눈이 가렵고 빨갛게 충혈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봄철(3~5월)에 특히 기승을 부린다. 봄바람을 타고 꽃가루, 미세먼지, 동물 털 등이 날아와 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봄철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2016년 72만 6,198명에서 2018년 79만 6,978명으로 늘었다. 일상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안질환인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본다.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봄철 눈이 가렵고, 눈곱 많아지면 병원 가야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대기 중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눈에서 항원으로 작용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눈꺼풀과 결막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눈이 가렵고 평소보다 눈곱이 많아지면서 눈물도 난다. 이물감과 함께 충혈되며, 눈 주위가 붓는다. 증상이 심해지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온다. 보통 결막염은 시력이나 눈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눈을 만지거나 비비면 증상이 심해져 시력이 떨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다. 물집이 생기는 것처럼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는 결막부종, 각막궤양 등 다른 안질환이 병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이 생겼다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통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주 증상인 알레르기성 비염이 동반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 수가 많고, 청소년기와 40대에 자주 발생한다. 다행히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유행성 각결막염, 세균성 결막염과 달리 전염성은 없다.



손 씻기가 예방의 기본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만 철저히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하는데, 보통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눈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보호안경,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주거나 인공눈물을 눈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는 번거로워도 착용 전후 세척한다.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세척하는 것은 눈을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결막염이 생긴다면 염증세포를 안정시키는 안약을 예방 목적으로 점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실외 공기뿐 아니라 오염된 실내 공기도 알레르기성 결막염 위험을 높인다. 미국 환경보호국(US EPA)이 실시한 '인간 대기오염물질 노출 연구'에서는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2~7배 더 오염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특히 봄철엔 실내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집먼지진드기,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침구나 카펫, 커튼 등을 세탁하고, 환기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털이 있는 애완동물과 접촉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안약을 차갑게 해 점안하면 증상 완화 효과 커

이미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린 것 같다면 가급적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초기에 치료하면 안과에서 처방하는 점안제로 금방 나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보통 처방을 내리는데, 감염이 의심되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 항히스타민, 항충혈 효과 안약과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하고, 하루에 3~4번 정도 얼음찜질을 하면 가려움과 부종을 완화할 수 있다. 점안제나 인공눈물도 차갑게 해 점안하는 것이 좋다. 항알레르기성 안약을 점안하면 하루 이틀 만에 증상이 호전된다.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내외 사회·경제·문화 현상과 관련된 트렌드와 흐름을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보는 시사 칼럼, 「키워드로 읽는 시사」입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늙지 않는 어른이들의 세상

네버랜드 신드롬



아이의 놀이터에 어른의 접근 금지 명령은 사라졌다. 어른과 아이가 뒤섞이고, 어른들은 때로 아이보다 더 들뜬 마음으로 놀이에 집중한다. 어른들의 '피터팬 모험기'가 시작되었다.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피터팬의 후손, 또는 복제 인간 클론들이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하나의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다. '어른답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한순간에 머물러 그 시절 자신의 기억을 오래 붙들던 대상에 집착하며 지금의 고단하고 복잡한 현실과 동떨어지려는 경향이 그것. 이른바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글 김고금평 머니투데이 기자

NEVERLAND SYNDROME

자유롭게 모험을 즐기고 희망을 놓지 않는 네버랜드 신드롬

지난해 초 대부분 편의점에는 포켓몬 빵을 사려는 어른으로 가득했다. 1990년대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을 그 시절 감성 그대로 담아 재출시했는데, 출시 43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리며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성인들은 레트로(과거 문화 회귀)로, 청소년들에겐 뉴트로(새로운 문화)로 각각 인식하며 누구나 사랑하는 최애템으로 떠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띠부띠부씰(포켓몬 스티커)' 뽑는 재미를 그대로 살려 어른과 아이의 동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피터팬 신드롬(콤플렉스)이 몸은 어른인데 심리적으로는 아이 상태에 머무르려는 퇴행적 심리 상태를 일컫는 부정적 정의라면, 네버랜드 신드롬은 피터팬처럼 늙지 않는 아이들이 모여 자유롭게 모험을 즐기며 사는 긍정과 희망의 찬사다. 특히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만큼 한국 사회에서 더 큰 미덕이 없다보니 더욱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저택 이름을 네버랜드 목장이라고 짓고 그곳을 테마파크처럼 판타지 넘치는 공간으로 꾸며 영원히 늙지 않는 아이처럼 살겠다고 공언했다.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그 '희귀한 삶'이 이제 우리 시대 '보편적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포켓몬 빵이 '정신의 유년화'를 추구한다면, 다음 사례에서 '육체의 유년화'를 통해 네버랜드 신드롬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나이를 거스르는 더 젊고 건강한 몸에 대한 열망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영화 '탑건'은 1986년 개봉했다. 그러고 나서 이 영화는 잊힐 법했는데, 지난해 후속작 '탑건: 매버릭'이 무려 36년 만에 개봉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이미 톰 크루즈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환갑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광했다. 명작의 후속편에 대한 기대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환갑의 나이에 여전히 젊은 시절과 똑같은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늙지 않은' 청춘에 감탄을 잊지 않은 것이다.

최근 넷플릭스의 화제작은 단연 '피지컬:100'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근육질 남녀 100명이 출연해 대결을 펼친다. '몸짱'들의 대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 서바이벌 예능에는 과거와 조금 다른 '무엇'이 있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의 승자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이 높지만, 이보다 "저런 몸이 어떻게 가능하지" 같은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며 관심을 쏟는 것이다. 50세로 '피지컬:100'에 출연한 추성훈을 보며 같은 나이의 직장 상사를 떠올릴 시청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네버랜드'를 꿈꾸기 전, 우리는 승진, 임금 인상, 사회적 인정 같은 능력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살아왔다. 하지만 네버랜드에 다가갈수록 희생보다 만족을 위해 사는 삶에 중심추를 옮기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더 어리고,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키덜트 마켓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올해 부각하는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네버랜드 신드롬을 꼽으며 '우리 사회의 유년화는 단지 일부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 나아가 생활양식이 되고 있다'고 정의했다. 여전히 어려지고 싶고, 어린 시절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용어부터 다르다. 아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인 '키덜트(kidult)', 어른과 아이의 조어인 '어른이'는 이제 보편어로 수렴됐고, 모임을 통해 젊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팬덤을 자처하고 무지개색 양말을 맞춰 신고 여행을 떠나는 풍경이 그렇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1990년대 만화 '슬램덩크'를 즐기던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키덜트 시장 규모는 2014년 5,0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기준 1조6,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앞으로 최대 1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덜트 시장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의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는 2019년 47억 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4억 2,000만 달러로 순수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바비 인형 제조 회사 마텔의 순매출도 45억 달러에서 54억 6,000만 달러로 늘었다.

늘어난 기대수명, 우리만의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찾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엔 만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우리 사회는 네버랜드의 가속화에 따라 더 젊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더 유치해지는 것일까. 네버랜드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는 배경을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늘어난 기대수명이다. 늘어난 수명에 맞춰 생애주기도 달라진다는 것. 어른이라는 구간을 이제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하다. 2015년 UN이 내놓은 연령 기준 제안을 보면 청년이 18~65세이고, 중년이 66~79세다. 이제는 청년-중년-노년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1-생애2-생애3'으로 독립적 삶의 단계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미래 불안감이다. 역사상 가장 호황인 시대에서 자란 세대가 앞으로 닥칠 불안을 보상받는 방식 중 하나로 과거 화려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거나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나 네버랜드는 '전 국민의 철부지화'라는 극단적 개인화에 매몰될 위험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자기주장만 내세우거나 생명이 없는 캐릭터에 집착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인데도 부모에게서 아직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만 만 19~49세 성인 자녀 중 미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추억하고 늘 젊은 감성을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것은 100세 시대에 행복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과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함께할 때, 나만의 네버랜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이다. Ⓚ

올해 경제 키워드는 소비 디톡스, '적게 쓰고 많이 모으는 법'

2023년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작년 초부터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가계에 많은 부담을 줬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정도 후에 소비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가계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현상으로 경기는 냉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투자보다는 높아진 금리에 발맞춰 돈을 아끼고 잘 모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돈을 모으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출 관리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소비 디톡스'만 잘해도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수월해진다. 경제 불황에 맞서 적게 쓰고 잘 모으는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글 김경필 경제 칼럼니스트 겸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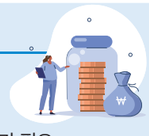
플렉스와 욜로의 과소비문화가 바뀌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라면 금리가 1%까지 낮아지며 그야말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고 자산 가격의 폭발적 상승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자산 가격의 거품과 더불어 여행과 이동이 제한되자 한국 사회는 집단 우울감을 소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소비 문화가 팽배해진 것이다. 월급 300만~400만 원인 직장인이 고급 외제차를 뽑는다거나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회 초년생이 명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 초년생이 본인의 SNS에 인증 샷 한 컷을 올리기 위해 한 끼에 2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 집을 드나들고, 젊은 직장인들도 코로나 블루를 탈출한다는 명분으로 골프장 투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장은 돈 빌리기가 쉽고, 그 비용도 터무니없이 낮은 초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유례없는 가파른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2023년은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 본격적으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므로 경기침체가 심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은 실제로 가계 부담을 높이는 만큼 이제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던 과소비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비정상적 소비를 지속했다면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

건강한 금융 생활의 시작은 소비 디톡스

최근 젊은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지출 챌린지'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 삼아 이벤트성으로 하기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쓰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소비를 막고 오히려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몸 다이어트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음식을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자는 취지인 것처럼, 소비 디톡스 운동도 우리 금융 생활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소비는 권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 디톡스 운동의 실천 사항은 바로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습관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갖고 싶은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인데 마침 갖고 싶은 것이라면 몰라도, 오로지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소비 디톡스 운동의 핵심



1. 꼭 필요한 것 ⇨ 우선적으로 소비
2. 갖고 싶은 것 ⇨ 절제하는 소비
   바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

만일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겨 여행을 소비해야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일정 기간 돈을 모아서 그 소비를 위한 준비를 한 후 떠나는 것이 옳다.

높은 실질 금리, 정기적금으로 소비를 통제하라!

재테크의 기본은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의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끼고 나서 잘 아껴지면 그때 모아보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돈을 모으지 못한다. 이보다는 우선 모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모으고 그로 인해 아껴지면 그제야 불리고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2023년은 명목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장의 인플레이션 심리는 크게 하락하고 있어 실질금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실질금리 = 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정기적금 = 선저축과 강제 저축이 결합한 형태

따라서 우선은 투자보다 정기적금으로 공격적인 선(先)저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선저축이란 다른 어떤 일에 우선해 먼저 저축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정기적금을 하라는 것은 강제 저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실천하면 우선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소비를 통제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생활 속에 파고든 5가지 과소비를 막아내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 생활을 파고든 여러 가지 과소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과소비 다섯 가지 중 **첫째**는 바로 자기 소득의 6개월 치 이상인 차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통비로만 월 소득의 10%를 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과소비다. **둘째**는 매일 비싼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물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비싼 유명 커피 전문점보다는 좀 더 저렴한 선택지도 많아졌다. **셋째**는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늘어난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먹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넷째**는 소득의 15%를 넘는 문화·레저 비용이다. 수입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안배를 통해 일상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충동적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여유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주 떠나는 여행보다 계획과 준비를 통해 의미있는 추억을 남길 것을 추천한다.

경제 불황 시기, 지양해야 할 5가지 소비

1. 월 소득의 6개월 치 이상인 차를 타는 것
2. 매일 마시는 고급 테이크아웃 커피
3. 배달 음식으로 높아진 엥겔 지수
4. 월 소득의 15%를 넘는 문화·레저 비용
5. 계획없이 자주 떠나는 여행



2023년 한 해도 경기 불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높은 이율과 높은 물가로 실질 경제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현금 자산을 미리 확보해서 향후 다가올 투자의 기회에 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은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지켜주는 최고의 습관이 되어 줄 것이다.

「건강한 집밥」은 냉장고에 있는 일상적인 재료와 제철 식재료만으로도 특별한 한 끼 상차림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신체를 깨워줄 고소하고 바삭한 봄철 견과류 밥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3월이 되면 기온이 점차 올라 날씨는 따뜻해지지만, 신체 리듬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찌뿌둥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는 견과류로 영양소를 보충해 보면 어떨까요. 오독오독 씹을 때마다 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알차게 들어찬 영양분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이 함유된 견과류를 골라 먹으면 더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견과류 밥상으로 건강 챙기고 활기차게 봄 소풍 떠나봐요.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10~20대 검은깨, 치아시드, 밤, 호두



성장기에 있는 10대와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20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대부분 칼슘 하면 우유를 떠올리지만, **검은깨**는 우유의 10배가 넘는 칼슘을 함유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섭취를 권장하는 견과류입니다. **치아시드**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등 함유량이 여느 견과류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부에 몰입하는 시기인 만큼 피로 해소에 필수적인 비타민 C도 섭취해야 하는데, 달콤한 **밤**에는 상당량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와 꼭 닮은 모양을 한 **호두**는 두뇌 회전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만큼 꾸준히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여드름 개선,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는 만큼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필수 견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40대 아몬드, 브라질너트, 피스타치오



사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30~40대는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는 맛도 있으면서 영양도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불포화지방, 비타민 B·E를 비롯해 아연, 철분, 구리, 칼륨 같은 갖가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브라질너트**는 어떤 식품보다도 월등히 많이 함유된 셀레늄과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효과, 면역력 향상에 유효한 역할을 합니다. 또 최근 영양제로도 많이 섭취하는 비타민 B가 풍부한 **피스타치오**도 있습니다. 눈, 피부 건강에도 좋을뿐더러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어 자칫 고기 위주의 식생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도 합니다.

50~60대 마카다미아, 땅콩



5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노화가 빨리 나타나는 눈이나 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칼슘, 오메가3, 루테인 등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죠. 이런 영양분이 풍부한 견과류로는 **마카다미아**가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에는 오메가3, 오메가6, 비타민 B·C, 인,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갖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도 은은하고 부드러워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돼 고기 섭취가 줄어드는 것도 한국 고령층의 문제로 지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고기 섭취량을 늘리기 어렵다면 단백질이 함유된 **땅콩**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은행견과조림

살짝 짭조름한 맛 덕분에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먹기 좋은 메뉴예요. 원하는 견과류라면 무엇이든 넣을 수 있어요.



- **재료** 은행 150g, 견과류 250g, 포도씨유 약간
- **양념장** 간장 3큰술, 물 5큰술, 청주 2큰술, 맛술 2큰술, 물엿 2큰술, 소금 0.25작은술

TIP 견과류는 기호에 따라 여러 종류를 함께 사용해도 좋아요.
생땅콩을 이용할 때는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끓으면 건져 찬물에 씻어 사용하세요.

*** 만드는 방법**



❶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은행을 살짝 볶은 후 키친타월로 문질러 속껍질을 깐다.

❷ 양념장 재료를 섞는다.



❸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견과류를 볶다가 조림장을 넣어 약한 불에 조린다.



❹ 양념장이 자작해지면 은행을 넣고 조금 더 조린다.





쿵파오 치킨

중국식 닭고기 요리로 땅콩을 첨가해 살짝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메뉴예요. 닭강정 같으면서도 셀러리의 향이 특색 있답니다.



- **재료** 닭다리 살 300g, 전분 2큰술, 건고추 3개, 다진 생강 1작은술, 다진 마늘 0.5큰술, 식용유 1.5큰술, 셀러리 1대, 견과류 1컵, 양파 0.25개, 고추기름 2큰술, 후추 약간
- **양념장** 간장 1큰술, 설탕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식초 0.5큰술, 청주 1큰술, 굴소스 1큰술

TIP 닭고기는 안심 부위를 이용해도 잘 어울려요. 견과류도 기호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넣어 주세요.

*** 만드는 방법**

❶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기로 자르고, 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양파는 작은 한 입 크기로 썬다. 셀러리는 어슷하게 송송 썬다.

❷ 닭고기는 후추와 다진 생강에 재웠다가 전분을 묻힌다.

❸ 양념장 재료를 섞는다.



❹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견과류를 튀기듯이 볶아 따로 둔다.



❺ 팬에 남은 기름에 건고추,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①의 닭고기를 넣어 볶아 따로 둔다.

❻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양념장을 넣어 볶다가, 파와 셀러리를 넣어 조금 더 볶는다.

❼ ⑤의 닭고기를 넣어 소스가 잘 배도록 함께 볶다가 ④의 견과류를 넣어 완성한다.



부럼 에너지 바

정월대보름에 먹고 남은 견과류가 있다면 이 레시피를 활용해 보세요. 견과류에 살짝 올리고당을 더해 모양만 잡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새롭게 바뀐답니다.



- **재료** 땅콩 30g, 호두 30g, 해바라기씨 20g, 아몬드 슬라이스 20g, 검은깨 약간
- **양념** 올리고당 30g, 설탕 50g, 식용유 약간

TIP 견과류는 약한 불에 살짝만 구워주세요.

*** 만드는 방법**



❶ 땅콩과 호두는 다진 뒤 해바라기씨와 아몬드 슬라이스, 검은깨와 잘 섞는다.

❷ ①을 달군 팬에 굽는다.



❸ 팬에 올리고당과 설탕을 넣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구워둔 견과류를 넣고 섞는다.



❹ 식용유를 발라 준비해 둔 틀에 ③을 넣고 주걱으로 평평하게 펼친다. 냉장고에서 15분 정도 굳힌 후 꺼내어 자른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회·문화계 인사들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고래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자

버려진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업사이클링 기업 '우시산'

&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해양생물 모양 소품

울산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래다. 울산의 오랜 전통산업이 고래를 잡는 포경 산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986년 고래잡이가 금지됐지만, 그 흔적은 지역 곳곳에 남아있다. 울산의 옛 지명을 딴 사명 '우시산'은 이런 특성을 살려 다양한 고래 마스코트를 새긴 각종 기념품과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는 점이다. 재활용품이지만 일반 상품보다 품질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더 섬세한 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든 덕분에 제품력과 디자인에 있어 인정을 받았다. 해양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홍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상도 많이 받았다. 고래와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의 환경개선에 일조하는 우시산의 의미 있는 활동을 만나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귀여운 해양생물 모양 소품 제작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글 편집실 /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바다 생명체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최근 미국 하와이 해변으로 떠밀려 온 죽은 향유고래 위장에서 어망과 비닐, 통발 등 각종 해양쓰레기가 발견된 일이 뉴스에 보도됐다. 아나운서는 고래 배 속에서 그물이 이렇게 다량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로 목숨을 잃는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익숙하다. 2022년 세계자연기금(WWF)의 조사에 따르면 해양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병과 그물 비닐은 썩지 않은 채 바다를 떠다니며 바닷고기의 아가미를 막고, 산호군락을 뒤덮어 버리고 있다. 이런 해양쓰레기는 결국 인간이 직접 회수하거나 사용 중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우시산은 이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흔히 볼 수 있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각종 제품을 만든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우시산의 '가치소비매장'

고래 덕분에 받은 사랑 돌려주는 업사이클링 제품

우시산은 2015년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실버 카페를 열며 시작됐다. 이후 지역 예술가와 손잡은 문화 사업부터 울산 기념품 제작까지 점차 활동 범위를 늘려왔다. 우시산이 고래에 눈뜬 것은 울산의 기념품을 제작하면서부터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을 통해 판매하는 고래 기념품이 인기를 얻자 고래에게 보답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고래가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게 된 우시산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디자인의 친환경 제품으로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은 홈페이지 기준, 30여 가지로 이 중 90%가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에코백, 베개, 인형, 장바구니 등 친숙한 제품에 울산의 마스코트인 고래를 새겨 더욱 매력적이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직접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품 원료 대부분이 폐플라스틱 같은 석유 성분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새로운 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 앞으로 판매 품목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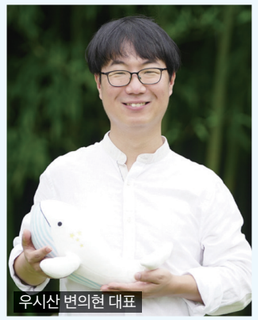
다만 업사이클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공정이 복잡해 제작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단점이다. 우시산은 대량생산을 통해 단가는 낮추되 판매는 더 많은 이에게 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했다. 변의현 대표는 취지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에게 선택받아야 그 가치가 더해진다고 믿는다. 그런 만큼 우시산 제품은 실용성은 물론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성품과 견줘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이 빛을 본 것일까. 2020년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상 표창, 2021년도에는 한국판 뉴딜상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여기에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도 획득하면서 국제적으로 통하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얻는 친환경·재활용

우시산은 앞으로 폐플라스틱 이외에 각종 재활용품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전용품이다. 현재 개발한 제품은 안전 콘과 안전모. 두 제품 모두 업사이클링 제품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출시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모는 버려진 안전모를 재활용해 만드는 만큼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업사이클 안전용품 브랜드를 별도로 출시해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 헌 옷에서 실을 뽑아 양말이나 장갑을 만드는 프로젝트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며 쓸모없어진 가림막을 활용한 제품 생산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지 묻자, 변 대표는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는 생활 속에서 관찰을 통해 얻는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는 해양환경 보호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업사이클링 인형과 에코백 제작 키트도 판매 중이다. 범고래, 고래,


우시산 변의현 대표



덕유산국립공원에 설치된 '친환경제품 자동판매기'


우시산의 대표 상품 '별까루 돌고래인형'

거북이, 해마 등 다양한 바다 생물로 구성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는 아이들에게 자기 인형을 직접 제작하며 업사이클링 원료의 우수성과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환경보호 홍보를 위해서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교육장 등을 만드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부산과 울산에 '탄소중립실천센터'라는 이름의 교육장을 3월 중 열고자 추진 중이다. 이곳에서는 해양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 방법, 우시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체험 등 갖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까이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덕유산 국립공원에 자판기를 설치해 오고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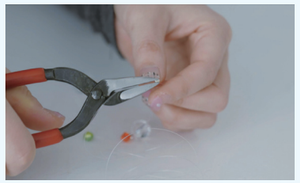
앞으로 우시산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업사이클링업체를 서로 연결하는 컨설팅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업사이클링 생산 시스템을 만들며 생긴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더 많은 업체가 업사이클 활동에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변 대표는 "앞으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업사이클 제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고래에게서 받은 사랑을 고래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시작한 업사이클링 사업이 바다 생태계 전체를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확장되며 더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 우시산. 울산의 옛 지명을 딴 사명에 걸맞게 앞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기를 응원한다. Ⓚ

재활용품으로 해양생물 모양 소품 만들기

해파리 선 캐처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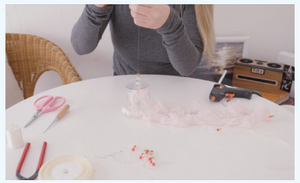




❶ 낚싯줄에 누름볼로 비즈를 고정하고 적당한 간격의 비즈 발을 길게 만든 후 레이스와 함께 가운데를 고정해 여러 겹의 비즈 발로 만들어주세요.



❷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뒤집어 아랫부분이 되는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이용해 스팽글 리본 장식을 붙입니다.



❸ 컵 중앙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후 낚싯줄을 넣어 만들어둔 비즈 발을 걸어 다시 빼내어 고정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면 해파리 모양 선 캐처가 완성됩니다.

휴지심으로 꽃게·문어 인형 만들기





❶ 휴지심 겉면에 붉은색 색종이를 잘라 붙이고 심 안쪽에는 모루를 잘라 테이프로 붙여 꽃게 다리와 눈 위치를 잡아줍니다.



❷ 미리 붙여 둔 모루에 눈 스티커를 붙이고 색종이를 오려 집게발도 만들어 테이프로 붙여주면 꽃게 인형이 완성됩니다.



❸ 같은 순서로 휴지심에 색종이를 붙이고 아랫부분을 가위로 여러 번 자른 후 문어 다리가 되도록 바깥으로 접고 눈 스티커와 반짝이 풀로 꾸미면 문어 인형이 완성됩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거북이 저금통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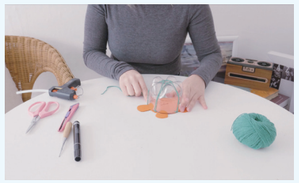




❶ 1.5L 페트병 아랫부분을 가로로 자른 뒤 잘린 페트병 위에 펠트지를 얹고 유성 마커로 거북이의 머리와 팔다리를 그려 도안을 만듭니다.



❷ 그린 도안을 따라 가위로 자르고 실을 연결할 구멍을 미리 송곳으로 뚫은 후 동전이 들어갈 만한 구멍도 함께 냅니다.



❸ 오린 도안 위에 페트병을 뒤집어 얹고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실을 연결해 고정한 후 눈과 폼폼 장식을 붙여 마무리하면 귀여운 거북이 저금통이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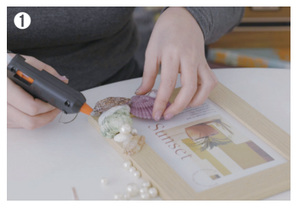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재활용품을 활용해 바다 생물 인형과 저금통, 액자 등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시 수 있습니다.

조개껍데기를 활용한 액자 만들기

액자와 다양한 종류의 조개껍데기, 진주를 준비합니다. 바닷가에서 직접 주운 조개껍데기와 유리구슬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액자를 바닥에 두고 큰 조개껍데기의 위치를 먼저 잡은 뒤 글루건을 이용해 붙입니다. 그다음 작은 조개껍데기와 진주를 이용해 남은 공간을 메우며 액자 프레임을 채웁니다. 준비한 액자 프레임이 넓을수록 작업하기 수월하고 더 완성도 높은 프레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조개껍데기를 채우고 접착제가 다 마른 후 어울리는 사진이나 엽서 등을 넣어 세우면 나만의 조개껍데기 액자가 완성됩니다.









교육 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로 시작하는 똑똑한 미래 설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공제회는 확고한 수익 기반과 공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급여율을 보장하는 각종 공제제도를 비롯하여, 전국 교직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평생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교육 가족이 보다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육 가족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예비 회원과 처음 가입하신 신규 회원님을 위해 공제회 대표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교직원이라면 최고의 재테크, 평생 금융·복지 파트너 '장기저축급여'

1971년 공제회 창립과 함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 가족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발전해온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는 연복리(연3.80% , 변동금리, 2022.7.1. 기준) 혜택과 더불어 저율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등의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교직원을 위한 저축제도입니다. 장기간 납입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며, 「한국교직원법」 제13조에 따라 원리금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연금 상품과 달리 모든 사업비 부과가 없으며,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시중 금융 상품과는 다르게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이자 소득세율도 저율과세(0~3%대)로 적용받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되어 대여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또 다른 노후 생활 보장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혹은 '퇴직생활급여'로 전환하여 공제회 회원 혜택을 그대로 누리며 품격 있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연복리 3.80% (변동금리)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이자소득 저율과세 (0~3%대)
※ 시중 금융상품의 경우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3호 근거)

보수,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 부과 없음

시중 금융기관의 신탁, 보험, 펀드 상품에 부과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유리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 가능

- 가입과 동시에 최대 7천만원 또는 1억원까지 대여 가능 (보증보험 가입 필요)
- 높은 대여한도 : 탈퇴(퇴직)가정급여금+한도 구간 3천만원 ~ 7천만원 또는 1억원 (보증보험 가입 별도 진행, 가입일·가입기간 및 신용평점에 따라 상이)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기타 무이자대여 이용 등

급여 자동 공제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원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저축 관리가 용이

다양한 혜택 부여

- 복지부조금 :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고구좌회원축하금, 신규회원가입 축하기념품 등
- 복지시설 이용 : 무료 법률·세무상담소 및 예식장, 지정된 병원·호텔·장례식장·복지시설 할인 등

유족·상병급여금 지급

- 회원이 사망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유족급여금 지급
-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상병급여금 지급

공제회 회원이 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복지 혜택!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 회원이 되면 금융·복지·할인·제휴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결혼자금 마련, 학자금 상환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대여제도를 선택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대여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및 부분 상환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교육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된 각종 보험 상품에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와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으며, 결혼·출산·질병 등의 경조사 발생 시 각종 축하금이나 기념품, 상병·유족급여금 등의 무상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영호텔&전용 콘도, 의료기관,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 혜택과 공연, 영화 예매권·도서 증정 행사, 레저·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문화·복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제회 회원만을 위한 각종 금융·복지·할인·제휴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려보세요!

대여제도
일반대여, The-K복지누리대여(행복누리 결혼대여/희망누리 출산대여/든든누리 주택대여), 무이자대여, 분할급여대여

보험제도
종합보험(종합공제), 건강보험(두번보장암공제), 어린이보험(자녀종합공제), 시니어보험(시니어종합공제), 간편가입보험(간편가입종합공제) 등

복지 부조
가입축하 기념품(신규회원/재가입/특별회원), 결혼축하금·퇴직기념품, 고구좌회원축하금, 출산축하금, 20년유지회원 감사축하금, 상병·유족급여금 등

생활 복지
직영호텔 및 전용콘도, 제휴리조트/호텔, 법률/세무상담, 문화공연, 레저/스포츠/교통, 의료기관, 예식장, 장례식장, 제휴카드, The-K 마음쉼, The-K 휴스테이 등

문화 행사
유명 뮤지컬/클래식/오페라/콘서트 등 고품격 문화행사 및 교육기관/연수원 대상 찾아가는 공연, 무료 영화예매권/도서 증정 등

'장기저축급여' 가입하는 방법!

가입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 1항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 공무원
-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 인정) 교직원
- 공제회 가입 가능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원
- 공제회 정관에 규정한 가입가능 기관의 임직원



▲ The-K 매거진 2월호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기사 보러가기

가입구좌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2,500구좌(1,500,000원)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 (1구좌 = 600원) ※ 2023년 1월부터 1,500구좌에서 2,500구좌로 확대

가입절차

STEP 1 서류 작성
- 내방: 시·도지부 및 본부 방문 후 서류작성
- 우편: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홈페이지: 본인 명의의 은행 및 보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

STEP 2 서류 접수 및 승인
- 내방·우편: 구비서류 및 자격 확인
- 홈페이지: 공동인증서(전자서식으로 자격확인 후 승인)

STEP 3 부담금 납입
급여에서 첫회 부담금 원천 공제 후 가입 완료

STEP 4 회원카드 발송
가입 신청 시 선택한 회원카드 발급



전국 76만 5천 교육가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준 : 2022. 12. 31)

총 **76만 4951명**,
총 **4억 7700만 1149구좌**

장기저축급여 20년 이상 가입자 수:
14만 1801명



현재 회원의 평균 구좌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준 : 2022. 12. 31)

연령대별 평균 구좌 수

20 ~29세	311 구좌
30 ~39세	344 구좌
40 ~49세	607 구좌
50 ~59세	936 구좌
60 ~69세	1,038 구좌
70 ~79세	805 구좌
80 ~89세	458 구좌

회원 1인당 평균
623.6구좌

최근 퇴직자 중 최고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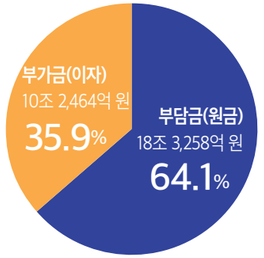
2023년 2월말 퇴직자 기준 **2억 9,840만 원**
(원금 1억 4,322만원, 부가금 1억 5,518만원) 수령
(1982년 가입 후 40년 8개월 동안 납입)



얼마나 많은 회원이 급여금을 수령했을까요?

공제회는 지난 52년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132만 9,830명의 회원에게 총 28조 5,722억여 원의 급여금을 지급했고, 회원이 낸 부담금(원금)은 총 18조 3,258억 원, 부가금(이자)은 10조 2,464억여 원으로 **급여금의 약 1/3 이상(약 36%)이 부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회원에게 지급된 장기저축급여금 구성]
총 **28조 5,722억 원**



지난 2021년에는 4만 7,839명의 회원에게 총 2조 4,160억원을 지급, 2022년에는 5만 1,013명의 회원에게 총 2조 7,675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425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은퇴 시 퇴직급여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가입기준(3.80% 변동금리), 단위 : 원)

납입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 구좌	원금	3,600,000	7,200,000	10,800,000	14,400,000	18,000,000	21,600,000
	부가금(이자)	357,040	1,525,280	3,671,000	6,994,590	11,737,520	18,190,730
	계	3,957,040	8,725,280	14,471,000	21,394,590	29,737,520	39,790,730
500 구좌	원금	18,000,000	36,000,000	54,000,000	72,000,000	90,000,000	108,000,000
	부가금(이자)	1,785,230	7,626,420	18,355,030	4,972,990	58,687,610	90,953,690
	계	19,785,230	43,626,420	72,355,030	106,972,990	148,687,610	198,953,690
1,000 구좌	원금	36,000,000	72,000,000	108,000,000	144,000,000	180,000,000	216,000,000
	부가금(이자)	3,570,460	15,252,840	36,710,080	69,946,000	117,375,230	181,907,380
	계	39,570,460	87,252,840	144,710,080	213,946,000	297,375,230	397,907,380
2,500 구좌	원금	90,000,000	180,000,000	270,000,000	360,000,000	450,000,000	540,000,000
	부가금(이자)	8,926,160	38,132,110	91,775,200	174,865,000	293,438,080	454,768,470
	계	98,926,160	218,132,110	361,775,200	534,865,000	743,438,080	**994,768,470**

※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 (1구좌 = 600원)
※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창구-저축-조회-장기저축급여-급여금 추정] 화면에서 구좌 및 추정 기준일을 입력하면 향후 추정 급여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세전 퇴직급여금이며 급여율 조정, 납입사항 및 소득세법 변경, 부가금 일할계산 등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년 미만 가입 후 탈퇴 시 원금 100%+가입 기간별로 이자 차등 지급
단, 20년 이상 가입 후 탈퇴 시와 일반·명예·정년퇴직 시에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 100% 지급

실제 가입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장기저축급여 이야기

고이율+연복리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를 거의 27년째 이용 중인데 쑥쑥 늘어나는 이자를 볼 때마다 든든함을 느낍니다. The-K 매거진 기사를 통해 퇴직 후 이용할 예정인 연금형 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높은 이자율을 주고 세제 혜택도 주며, 특별회원 자격도 주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생활급여 상품을 이용할 경우 적립형,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급여율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김*순 회원 대구해올중고등학교

재테크를 위해 펀드, 주식에도 넣어봤지만 원금손실 우려와 안정성을 위해 결국엔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를 투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 내 저축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퇴직 후 믿고 맡길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양한 회원 혜택을 누리면서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 같아 더욱 든든합니다.

박*희 회원 석천중학교

장기저축급여는 정말 매력적인 저축상품입니다. 저는 1981년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지금은 분할급여로 변경하여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기저축상품을 시중은행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경제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고 특히, 연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 환금성 면에서 최고입니다.

양*순 회원 前 광주효광중학교

장기저축급여를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신청했는데 두 번에 걸친 증액으로 꽤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부가금도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있어서 노후에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노후대책으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직원공제회 파이팅 입니다

손*숙 회원 홍천초등학교

장기저축급여가 매우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장점을 잘 모르셔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항상 최고 구좌를 이용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장점을 적극 홍보해 많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순 회원 도남초등학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 후 25년 이상 유지 하고 있는 회원인데, 가입구좌 증좌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차에 상한구좌 수 증좌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입장으로써 너무 너무 기다려왔던 소식이었기에 자녀에게도 알려주어 같이 증좌 신청을 했습니다. 타 시중 은행 저축상품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장기저축급여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인할 예정입니다. 항상 다양한 복지 혜택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제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녀 회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뢰받는 평생 금융·복지 파트너, 한국교직원공제회

불안한 금융 시장 환경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 복리 효과와 안정성을 갖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생애 재무 설계에 든든한 도움이 될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통해 품격 있는 노후로 나아가는 길을 설계해보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장기저축급여' 바로 가기

◀ '장기저축급여' 자주하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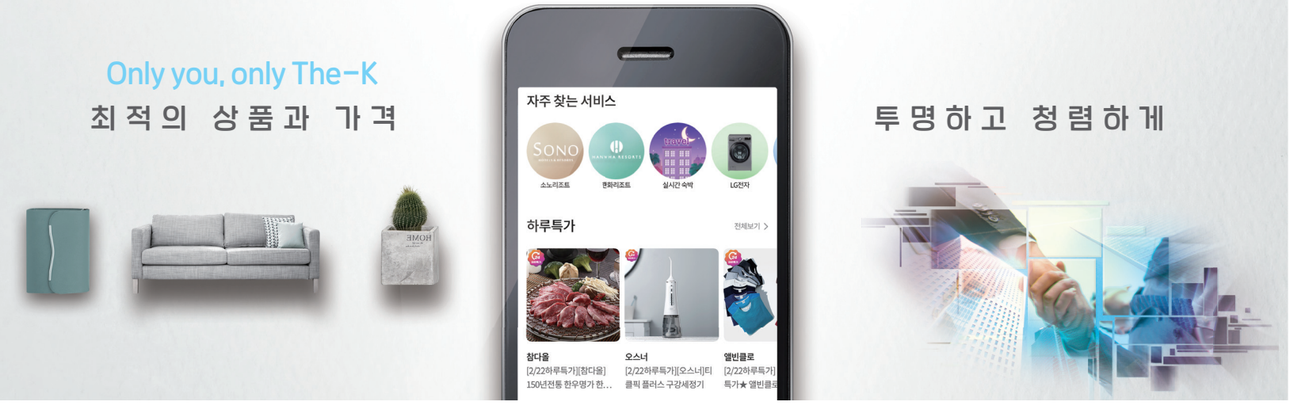
☎ 문의: 1577-3400
(회원 콜센터)

더 저렴하게, 더 투명하게, 더 편리하게
교직원 최고의 복지 포털 서비스 & S2B



교육 가족이기에 행복한 세상!
The-K 교직원나라가 열어드리겠습니다

The-K교직원나라(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로 교직원 복지포털 서비스와 지정정보처리장치 S2B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2B는 교육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케이몰의 리뉴얼을 통해 회원들의 니즈를 충실히 수용하면서 교직원 복지 시스템의 정점을 찍고 있다.



교육기관과 교직원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

오직 높은 생산성과 수익이 기업과 기관의 최고 목표이던 시절은 지났다. 각 기업이나 기관이 내·외부 고객을 위한 복지와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인 The-K교직원나라는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2000년에 설립됐다. The-K교직원나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더케이몰과 S2B 사업 운영이다.

더케이몰은 **교직원공제회 회원 전용 복지 포털**로 **법인콘도 예약, 실시간 숙박, 여행, 쇼핑, 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 전용 특별 혜택으로 상시 제공**하고 있어 많은 회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S2B는 The-K교직원나라의 핵심 사업이다. **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 2의거,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각급 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용기관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월 새롭게 부임한 The-K교직원나라 이상목 대표는 누구보다 S2B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상목 대표는 S2B 운영 초기 15만 건에 불과하던 조달 건수가 지난해 91만 건으로 증가하고, 2,400억 원이던 조달 금액이 약 1조 1,86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S2B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6일 **지방계약플랫폼 S2B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면서 새로운 날갯짓을 할 준비를 마친 The-K교직원나라.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를 새로운 고객으로 모실 준비를 완료한 이곳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해본다.



지난 2월 2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진행된 2023년 S2B 전문강사·패널단 위촉식 및 워크숍


The-K 교직원나라 이상목 대표

2023년 S2B 전문강사·패널단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지난 2월 2~3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는 **'S2B 전문강사·패널단 위촉식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S2B 전문강사 및 패널단은 계약업무와 S2B 시스템에 능숙한 교육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S2B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는 그룹으로 금번 행사는 교직원나라가 개최한 새해 첫 행사이다. 2023년도 S2B 전문강사 및 패널단은 전문강사 42명과 패널단 61명 등 총 103명이 위촉됐으며, 이들의 활동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패널단은 S2B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전문강사**는 **S2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목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S2B는 교육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받은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한가람초등학교 윤미영 전문강사의 S2B 표준교안 가이드 발표가 진행되어 새롭게 위촉된 전문강사에게는 S2B 교육연수 진행과 표준교안 활용 방법을, 기존 전문강사에게는 타지역 교육연수 진행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2023년도 전문강사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S2B를 통해 예산은 절감하고 업무는 훨씬 수월해 졌어요"

김매선 주무관
(부천 부명초등학교 행정실)



김매선 주무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S2B 전문강사로 위촉되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7년 차지만, 그에게도 S2B 시스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다. "교사 중 한 분이 S2B 시스템으로 연계해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품의서를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겁을 먹은 채 S2B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메뉴 구성이 워낙 잘 되어 있어 콜센터 상담원 도움 없이 바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매선 주무관에게 **S2B 시스템은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었다. S2B 전문강사로 일하게 된 것도 이 같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S2B의 경우 일반 마켓에서 일을 처리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품질도 만족스러운 데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계약과 관련해 법적인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더없이 만족스러워요.**"

김매선 주무관은 앞으로 더 많은 담당자가 S2B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길 바란다며, 2023년에도 S2B 전문강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경제는 살리고, 편의성·투명함은 올리고!
전국 지자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 정식 오픈'

지금까지 The-K교직원나라는 교육 가족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S2B 사업이 출범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온 S2B 노하우가 기반이 되어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기회가 찾아왔다. 이 기회가 지난 1월 16일 오픈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이며, 이는 작년 6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지방계약플랫폼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지방계약플랫폼은 그동안 교육기관이 이용해 온 S2B를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방서, 보건소 등 지자체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MOU를 체결한 이후 저희는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S2B 사용 용어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완하는 등 계속 수정해 가면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S2B 담당자의 설명이다.

대상 기관들은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7,000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금액 범위 내의 계약이 가능하며, 간행물(도서) 구매 시에는 한도금액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플랫폼 S2B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업무 편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S2B를 통해 수의계약(1·2인)부터 입찰까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계약 관련 서식이 자동 제공되는 등 업무 효율성 역시 크게 높아졌는데, 혹여 플랫폼 이용 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방계약플랫폼 S2B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업체와 물품이 우선 검색되는 기능을 탑재해 구매 담당자들이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S2B 고객센터 : 1577-3309





"실무 담당자도 물품 주문자도 모두 만족! 효율성과 투명성은 최고!"



신동원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

"상록청소년수련관은 2003년에 개관한 안산시 대표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체험 활동, 진로 지원 강화, 과학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해 안산시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관장이 상록청소년수련관의 위상과 역할을 설명한다. 과학관, 체육관, 풋살장, 소극장, 농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곳은 그 특성상 어느 곳보다 S2B를 활발히 이용하는 지자체 기관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운영지원팀이 있다. "저희 팀은 계약·회계·지출·홍보·예산관리·공사 등 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팀입니다. 한마디로 수련관의 안살림을 도맡고 있는 팀이에요." 운영지원팀 조경숙 팀장이 운영지원팀의 역할에 대해 안내한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활동에 사용할 물품 구입이다. 그러나 이는 기관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저희는 인터넷 구매에 제약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나 관리의 까다로움 때문에 특정 사이트만 이용하고 있었는데 금액에도 한계가 있고, 물건 종류도 원하는 만큼 없었어요. 또 필요한 서류를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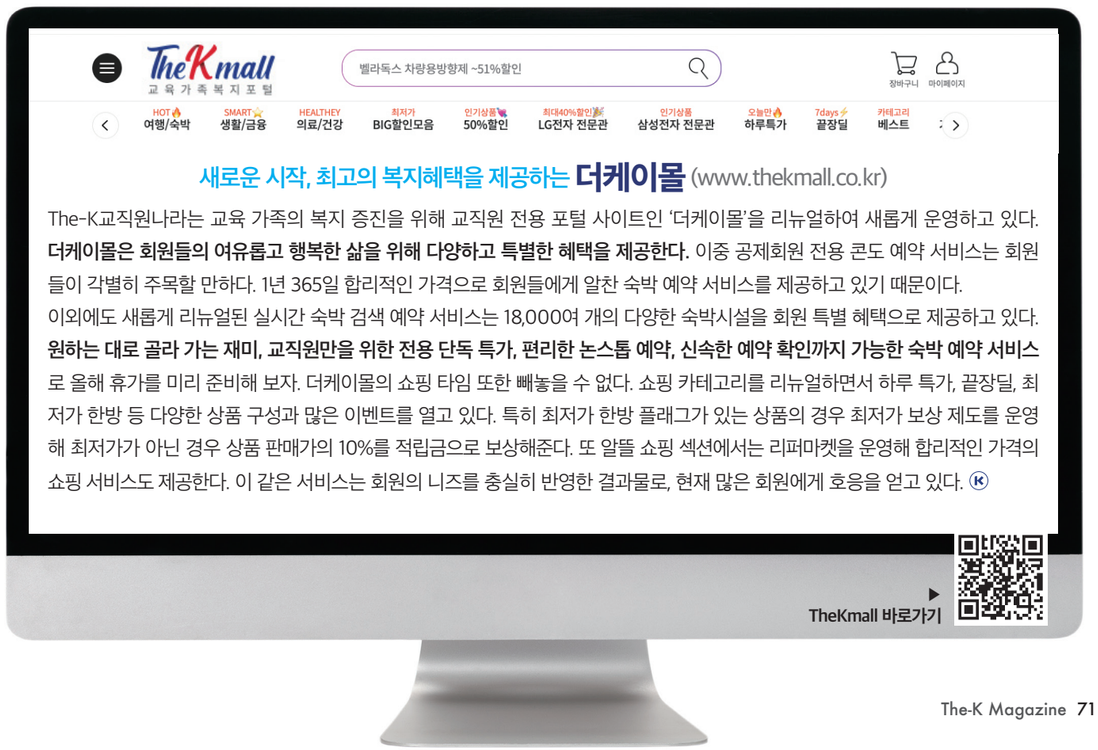
운영지원팀의 이종란 행정원이 이러한 어려움과 제약들 때문에 알아낸 것이 바로 S2B다. 경기도 안산시(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아 지방계약플랫폼 S2B의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한 뒤 이를 적극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체만 선정하면 필요한 서류가 전부 자동으로 출력된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만약 수의계약을 한다면 해당 업체와 일일이 통화하며 챙겨야 하는 업무가 줄어드니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최고**였지요. 여기에 **다양한 물품 구비, 빠른 배송은 기본**이고요. **덕분에 물품 구매를 원하는 타 부서의 만족도도 정말 높아졌습니다.**"



조경숙 팀장과 **이종란** 행정원

지방계약플랫폼 S2B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학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관계자가 많아 아쉽다는 조경숙 팀장과 이종란 행정원. S2B는 자신들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활짝 미소를 짓는다.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대여이율 변동 안내

2023년 3월 1일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및 대여이율이 변동된다. 지난해 9~12월 각종 저축제도 급여율 인상에 이어 이번 3월부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및 퇴직생활급여(확정연금형) 급여율은 3.80%에서 4.50%로 상향 조정된다. 분할급여대여 이율 또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에 맞춰 동일하게 3.80%에서 4.50%로 인상된다. 분할급여대여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기존 대여를 유지 또는 신규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분(0.07%p)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동되는 것이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여 상환예정금액 조회는 3월 1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지난 12월 급여율 인상 이후 목돈·퇴직생활급여(확정연금형 제외) 급여율은 5.70%에서 4.80%로, 법인예탁급여 급여율은 5.80%에서 4.80%로 다시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구분	현행	조정	비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3.80% (변동금리, 세전)	4.50%	0.70%P 인상
퇴직생활급여 (확정연금형)			
분할급여대여 (전환/일반)			
목돈급여 (부가금형·예탁형·적립형)	5.70% (변동금리, 세전)	4.80%	0.90%P 인하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적립형)			
법인예탁급여	5.80% (고정금리, 세전)		1.00%P 인하

문화라운지 회원 초청행사 I, 3월 2일~15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 첫 「The-K 행복서비스」 - 문화라운지 초청행사 I을 통해 인기 뮤지컬 공연에 공제회원들을 초대한다. 전국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다양한 공연을 선정하여 기획하였으며, 서울(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4월 7~9일)에서 '영웅', 익산(익산예술의전당, 4월 14~16일)에서 '캣츠', 대전(대전 예술의전당, 4월 14~16일)에서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즐길 수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각 공연별 회원 300명씩 총 900명에게 선택한 관람권(1인 2매)을 증정하며, 당첨 발표일은 3월 27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 매점 콤보 상시 할인서비스 제공



공제회는 공제회원이라면 누구나 영화 예매와 매점 콤보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휴 할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 > 영화' 메뉴에서 1일 1회 2매 할인 예매권 번호를 발급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관 예매를 하면 된다. (영화 예매 시 일반관 기준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9천 원 관람 혜택 제공. 영화관 3사 통합 총 월 20매 발급) 단, 할인 예매권 번호는 발급 당일에 한하여 재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영화관 정책에 따라 일부 지점은 제외될 수 있으니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용제외 지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매점 콤보도 CGV·메가박스 3천 원, 롯데시네마 2천 원 상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화관 현장에서 공제회 회원증 제시가 필요하나, 홈페이지상 매점 콤보 할인쿠폰 온라인발급 서비스가 4월 중 오픈되어 비대면 할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장기간 고구좌를 유지하신 회원님께 고(高)구좌회원축하금 지급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기간이 25년 이상이고(2022년도 12월 말 기준), 총 누적 구좌 수가 상위 1%인 일반회원 중 지급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고구좌 회원 4,271명을 대상으로 축하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단, 기지급 회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 기간 중 1회만 지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고구좌회원축하금 지급은 200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상 회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안내를 받은 고구좌회원축하금 대상 회원은 홈페이지(PC·모바일) 및 내방·팩스·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 전국 8개 교육청 신임 교육감 순회 방문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결과로 선출된 전국 신임 교육감 8인을 순회 방문하여 공제회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 8월 31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김대중 교육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전북·제주·부산·경기·충북·강원 신임 교육감 8인을 모두 만났다. 5개월여 간의 순회 방문에는 공제회 각 시·도지부 직원들도 참석하여 공제회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강화와 함께 공제회 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김상곤 이사장은 "교직원만을 위해 특화된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소통하려면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와 담당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청 순회 방문이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시·도지부 업무 활성화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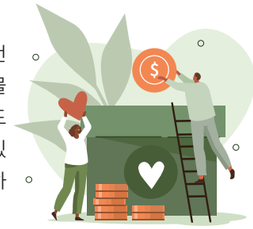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월 20일 한국연구재단(사진 좌)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우)과 감사업무 선진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시스템 및 감사 정보·자료 등 공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및 교차 감사 인력 지원 ▲ESG 경영지원을 위한 감사기구 간 상호 노력 등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감사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재수 상임감사는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두 기관과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감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The-K 브랜드 캠페인 이벤트 "오( )완 챌린지" 챌린지 달성 회원 250명에 상품권 증정, 3월 24일~4월 6일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The-K 브랜드 캠페인 "오( )완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챌린지 형식의 캠페인으로, 각자 삶의 무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과 교직원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으며, 챌린지에 성공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며,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3일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성금 1억 원 기부



튀르키예 및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피해 발생 지역의 난방용품 및 식량보급 등 긴급 구호물품 전달과 피해지역 재건, 이재민의 의료보건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도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으로 1억 원, 혹서기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2억 원 등을 기부한 바 있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현장 지원,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 활동 등 동반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The-K 출자회사 3월 소식

The-K호텔서울

개관 32주년 기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객실 특가 이벤트'





The-K호텔서울은 개관 32주년을 맞아 공제회원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객실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해당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다. 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은 8만 원, 주말(금~토)은 1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 한 달 동안 **우첼로 패키지**도 특별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우첼로 조식 패키지**는 디럭스 트윈 1박과 조식 뷔페 2인 구성, **우첼로 디너 패키지**는 디럭스 트윈 1박과 우첼로 세미 뷔페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회원 할인가로 우첼로 조식 패키지는 주중 12만9천 원, 주말 15만9천 원이며, 우첼로 디너 패키지는 주중 15만2천 원, 주말 18만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주중: 일~목, 주말: 금~토, VAT포함) 패키지 이용 회원에게는 피트니스클럽 50% 할인, 레스토랑 우첼로와 베이커리 카페 델리 식음료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The-K호텔서울 객실을 이용하는 공제회원에게는 1층 우첼로 공제회원 핏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커피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이며, 체크인 당일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한편, 레스토랑 우첼로에서는 6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디너 세미 뷔페도 진행한다. 갈비찜, 깐쇼새우, 닭강정, 딤섬, 훈제연어, 토마토 카프레제, 연어샐러드 등의 뷔페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고루 맛볼 수 있으며, 이용 고객은 생맥주를 5천원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수~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성인 4만3천 원, 소인 2만7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공제회원은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The-K호텔서울은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호텔 내부의 넓은 녹지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이 뿜어내는 향기와 함께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호텔경주

새 학기 기념, 2023년 뉴스타트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3월, 새 학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제회원을 위해 **2023년 뉴스타트 패키지**를 진행한다.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구성이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회원 할인가로 11만6천 원부터 이용가능하다. 패키지 이용 동반고객 중 초·중·고·대학 입학 및 졸업생에게는 조식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토요 디너뷔페 졸업·입학 축하 이벤트**도 실시한다. 디너 뷔페는 성인 4만 원, 어린이 2만5천 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4인 이상 디너 뷔페 이용 시 졸업·입학 당사자 1인은 무료, 3인 이용 시 졸업·입학 당사자 1인은 50% 할인된다. 사전 예약할 경우 최대 20% 할인도 가능하다.

한편 The-K호텔경주의 **천연온천사우나**는 경주시 지정 최우수 사우나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천연 알칼리성 100% 온천 원수인 데다, 특히 야외노천탕은 자연 숲속에 위치하여 운치까지 뛰어나다. 뜨거운 야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바깥 공기에 얼굴을 내맡기면 어느새 기분 또한 상쾌해진다. 천연온천사우나에서 피로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다. The-K호텔경주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산수유꽃 사행시~ 주인공은 누구?' 이벤트



매년 3월 국내 최대 산수유 마을,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는 봄 내음 물씬 풍기는 산수유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24회를 맞는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3월 11~19일 총 9일간 The-K지리산가족호텔 근처인 산동면 산수유마을을 비롯한 지리산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사랑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 공제회원들이 산수유꽃을 만끽할 수 있도록 3월 **'산수유꽃 사행시~ 주인공은 누구?' 이벤트**를 준비했다. '산수유꽃'으로 사행시를 짓고, 산수유꽃을 배경으로 멋진 포즈의 인증사진 1장을 찍어 함께 호텔 공식 이메일(jirisan8100@naver.com)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The-K지리산가족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3월 한 달간 진행하며 추첨 일자는 4월 15일 예정이다. 인증사진은 체크인 및 체크아웃 날짜 기준으로 객실 1실당 1인, 개인 방문일 경우에 한하며, 본인 사용 시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인증사진 발송 시 이메일 제목란에 예약자(투숙자)명과 연락처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제주도를 담은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 공제회원 할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새 봄을 맞아 공제회원들이 제주도 여행 시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 공제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는 제주 시내 및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을 자랑하며, 다양한 세계 음식과 제주도 식재료를 활용, 다채로운 메뉴를 꾸준히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100가지가 넘는 메뉴로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으며 즉석에서 음식을 조리해 주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프렌치랙 양갈비 스테이크 메뉴는 양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우유에 3시간 동안 재우고, 올리브오일 및 향신료, 허브 등으로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더블루만의 조리방식으로 양고기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향미와 수분을 유지하여 더블루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

더블루에서는 사전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예약하여 여유 있는 테이블 좌석에서 공적·사적 모임도 진행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조식의 경우 오전 6시 30분~10시, 중식은 오후 12시~2시 30분, 석식은 오후 6시~9시 30분이며 상황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부터 예약이 진행되며, 공제회원은 뷔페 20%(본인 포함 4명, 조식 10%)와 음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제회원 할인가 등 자세한 사항 및 예약 문의는 호텔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1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882명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 2023년 1월호는 2023년 첫 호인 만큼 설렘과 기대로 맞아주신 회원분이 유난히 많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일까요. 2019년 9월 회원 소통 창구를 개설한 이후 가장 정성스럽고, 많은 882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의 회원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더욱이 「The-K 매거진」 기사를 통해 새해 계획을 세우셨다거나, 매거진과 함께하는 일상의 변화가 행복하다는 등 다정한 감사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회원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 독자 의견을 분석하는 내내 감사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올 한 해도 회원님의 일상에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소개된 32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The-K 매거진」에서는 2023년 공제회 새롭게 달라지는 것,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등 교육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변화와 건강한 이야기를 전해줘서 마음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The-K 예방의학'을 통해 새해 건강 목표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계기도 마련된다면 큰 위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 회원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이번 1월호 정말 좋네요. 지금껏 매 호 나름대로 특색 있고 다 좋았는데, 이렇게 좋다고 회원 의견란에 글로 쓰는 건 처음이에요. 올해 2023년 전체를 아우르며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방향성을 제시한 기사도 너무 좋았고, 힐링과 유익함 그리고 잔잔한 감동까지 전해주는 지면마다 꽉 채워진 기사도 너무 좋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땀과 수고가 매 지면 속 기사들 행간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건의나 의견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 가득 드리고 싶네요.

오*윤 회원 인천이음초등학교

많은 회원이 좀 더 쉽게 퀴즈에 응모할 수 있도록 1월호부터는 OX 퀴즈로 되어 있어 참여에 부담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계묘년'으로 다양한 회원들의 삼행시가 매거진의 '생각 나누기'와 잘 맞았던 것 같아 새해의 시작과 설렘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행복 곱하기'에는 요리부터 다양한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곱하기 내용이 많아 집에서 일하면서 읽으며 기사의 풍성함에 행복이 배가되어 '행복 곱하기' 카테고리와 딱 맞았습니다. 공제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가 더해진다면 더욱 친근감도 느끼고 보는 즐거움이 더할 것 같습니다.

박*미 회원 부산 동양초등학교

이번 신년 호에서는 무엇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는 소소한 기다림이 있는 문화 행사 일정을 한데 모아 알려준 기사가 꿀팁이었습니다. 북&JOY 도서 증정과 장기저축급여 상한 구좌 수 확대 기념 증좌 신청 이벤트를 시작으로 문화 라운지 티켓 증정, 아트&JOY, 씨네&JOY, 스포츠&조이 액티비티 이용권 증정 이벤트까지 매월 다채로운 문화 행사 응모 이벤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월 「The-K 매거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알차고 재미있는 기사가 많고 공제회 회원들이 함께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소소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꿀팁 기사를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진 회원 서울아현초등학교

2022년에 「The-K 매거진」을 알게 되었고 이제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The-K 매거진」을 알기 전에는 잘 모르고 지냈던 부분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느껴지는 혜택과 소식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 회원 서울개봉초등학교

어느 정보지보다 정제되고 다양한 정보를 선택해 회원들에게 전해주는 「The-K 매거진」을 매달 기다리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부터 「The-K 매거진」의 광팬으로 살고 있어 싫증도 날 만한데 현재까지 매번 매거진을 받아 책자를 펼치는 순간의 가슴 떨림과 흥분은 다른 정보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다.
매거진의 매력은 다양하고 정제된 정보의 선택인 것 같고, 매번 신선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과 이벤트도 크게 한몫하는 것 같다. 또 특별 소장본까지 보내주어서 과거를 다시 살펴보게 해주는 특별 서비스까지 덤으로 주어 더욱더 감사할 뿐이다.

양*순 회원 前 광주효광중학교

종이로 된 글을 읽는 것이 어색해진 요즘이기에 전 공제회에서 보내주시는 이 잡지가 너무도 반갑습니다. 앱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과연 뒷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두근거림으로 알찬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릴 때 보던 월간 만화잡지의 느낌보다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부산 여행을 계획 중인데 충남 청양을 소개해 주시니 2월엔 여기도 가봐야겠습니다. 교육은 코칭이라는 폴 김 부학장님 말씀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닌 소통을 배워야 한다는 '원더티처' 선생님들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방학 중 계획을 잘 세워 올해도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물론 장기저축급여 증좌와 이벤트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이*희 회원 파주 한빛고등학교

먼저 교직원들에게 매월 알찬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호에서는 'The-K Focus'를 통해 제115회 대의원회에서 2023년도 기본 운영 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심의 의결이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회원 중심의 금융과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너무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평생 동반자로서 변함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균 회원 前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매달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The-K 매거진」 2023년 계묘년에도 어김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폴 김 부학장님과, 현재 함께 근무하고 있는 덕성여고 전해림 선생님의 원더티처 창단 이야기, 노트 쓰기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이재영 교수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역할인 드론으로 교육 봉사를 하고 계신 김해충 회원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숨은 명소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까지.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따뜻한 이야기는 방학 중에 재충전 중인 우리 교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The-K 매거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우 회원 덕성여자고등학교

1월호라서 그런지 새해에 더 좋아지는 회원 복지 혜택 등이 잘 소개되어 기분 좋아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산 규모, 회원 수 등이 숫자, 그래프로 소개되어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오직 회원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혜택과 맞춤형 복지 제공이라는 약속에 믿음이 가는 기사였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구좌 수 확대도 반갑고, 기념품 복지 혜택도 잘 소개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직회원인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더라도 장기저축급여 상한 구좌 수 확대 소식 등은 무척 고마운 소식입니다. 마지막 연간 문화 행사 모음집은 다이어리, 사무실 책상 등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내용, 디자인이었습니다. 많은 공제회 회원들 의견처럼 이벤트에 내가 당첨이 안 되더라도 다른 회원분들이 당첨되는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기에 공제회 연간 행사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경 회원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새해를 맞이하며 좋기도 했지만 생각이 많았던 저는 이재영 교수님의 글을 읽고 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고민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제 고민을 덜어내고,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으며 나를 치유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저도 직접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사소한 고민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치유하고 나를 알아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매년 회원들에게 새롭고 더 나은 정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공제회 직원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 혜택을 이해하기 쉽도록 매거진 등으로 알려주시니 너무 좋네요.

김*연 회원 센텀중학교

매거진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사진, 바로 클릭해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의 폴 김 부학장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도전한 미국 유학, 그리고 부학장의 자리까지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외에도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교육관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말하듯이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봉사를 다니며 교육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감동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나의 배움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김*희 회원 영주가흥초등학교

이번 1월호의 '행복 곱하기' 중 'DIY 리사이클링'에서 소개한 트레일 러닝 환경보호 단체 '세이브 더'에 대한 이야기가 신선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가들이 매년 주제를 정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활동들이 무겁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참여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 중에 매우 유용한 방식인 것 같아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시도하고 싶네요. 재활용품으로 반려동물 용품을 만드는 아이디어와 팁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가정에서 환경보호도 실천하고 반려동물에 즐거움도 주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박*득 회원 대자중학교

2023 계묘년을 맞이한 「The-K 매거진」은 2023년에도 알찬 내용으로 매거진을 꾸려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계묘년 삼행시도 다들 어쩜 이렇게 잘 지었는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 '방방곡곡 숨은 명소'! 오늘은 충남 청양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번엔 어디를 갈까 고민했는데, 청양으로 정하고 저와 친구는 지금 계획 중에 있답니다. 알프스마을 제가 경험하고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The-K 공제회 이벤트와 뉴스 파트는 제가 눈여겨보는 파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날짜와 이벤트를 공지해 주고 새로운 소식을 보여줘서 정말 좋아요!

김*우 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오늘의 학교' 코너의 '내 안의 천재성을 끌어내는 마법 같은 노트 쓰기'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마침 이재영 교수님이 강조한 작은 공책에 틈틈이 필기하기의 중요성에 꽤 공감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작은 수첩 하나를 마련해서 늘 갖고 다니려 합니다. 교직원공제회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The-K Focus 1' 코너를 통해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공제회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셔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더욱 신뢰가 가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공제회 회원들의 안정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자산을 잘 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영 회원 서울상월초등학교

표지에 예쁜 미소로 저를 맞아주는 두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꿈 너머 꿈'을 눈여겨 읽었습니다. 여자 교사체육공동체 '원더티처' 활동을 하고 있는 전해림, 홍유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아이들이 즐거운 체육 시간을 운영하려면 교사부터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원더티처'를 결성해 학교 체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상과 교과가 다르지만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을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가 즐거워야 아이들도 즐겁다는 인식을 심어준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명 회원 인천장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The-K 매거진」이 이렇게 실속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광고 수신 거부를 해서 그런지 이메일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메일로 「The-K 매거진」 1월호를 받아 보니 내용도 풍성하고 이벤트도 많네요! 많은 분에게 「The-K 매거진」을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교직원공제회 회원인 선생님들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널리 널리 홍보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기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면 좋겠습니다. IMF 이후 처음 겪는 경제 위기라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똑똑! 트렌드 경제'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진 회원 설악고등학교

매월 초 이메일과 문자를 기다리게 하는 「The-K 매거진」입니다. 재직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 읽었지만 퇴직한 후에는 꼼꼼히 매월 읽고 있습니다. 이번 1월호에 실린 '우리 어렸을 적에' 추억의 사진을 보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반에 약 70명 정도로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등교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을 간혹 만나면 예전 얘기하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와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회원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겁니다. 특히 퇴직한 제 생활을 더욱 보람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박*영 회원 前 백송고등학교

1월호를 통해 2023년에 공제회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나 보험 및 부담금과 관련해 개선되는 내용도 좋았지만 저는 복지부조제도 개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기념품에서 축하금으로 바뀐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건보다 현금이 훨씬 유용하다 보니 꼭 잊지 않고 신청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글을 보면서 축하 기념품 말고도 결혼이나 출산, 장기 유지 회원, 고구좌 회원에 대한 혜택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직원공제회와 오랜 파트너로서 함께할 이유가 또 생겼네요.

김*리 회원 대전노은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매달 받아보며 빡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며 마음의 여유를 잠시나마 가져봅니다. 1월에는 2023년 월별 문화 행사 소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서 벌써 다음 달 매거진이 기대될 정도입니다. 다른 분의 사연을 보며 나를 뒤돌아보고 인생의 해답을 하나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매거진을 매월 구독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늘 좋은 소식과 훈훈한 내용으로 월 1회 감동을 주시는 편집실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김*성 회원 대구비슬초등학교

매월 바뀌는 매거진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일하느라 정신없던 하루의 마지막에 매거진을 보면 따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따뜻한 소식이 저에게도 참 좋은 영향이 되어 저 역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The-K 매거진」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참 좋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이야기들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민 회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빛나는 나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 이번 호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된 구절이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2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반짝반짝 빛날 나를 위해 새롭게 펼친 페이지는 수줍게 살짝 드러난 황금빛 해였습니다. 물결 이는 파도 속에서도 인내로 오르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빛나는 나'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문장이 가장 아래에 있었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지금까지 「The-K 매거진」을 보았지만, 이번 호는 가장 먼저 만난 페이지부터 고마웠습니다.

이*영 회원 서울우장초등학교

「The-K 매거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 중 하나는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항상 다양하고 참신하게 실어준다는 점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제회의 각종 금융 제도에 대한 설명도 매우 유익했고, 가장 좋아하는 코너 중 하나인 '방방곡곡 숨은 명소' 덕분에 매번 우리나라의 멋있고 매력적인 장소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 'DIY 리사이클링' 코너의 콘텐츠도 매번 잘 챙겨 보고 있는데요, 1월호에서는 반려동물용품을 만드는 내용이 수록돼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독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권*지 회원 강원대학교

이번 코너에서는 '좋은 사람 좋은 생각'에 실린 폴 김 교수님의 영상 및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늘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 같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칭찬하며 격려하고, 평생의 삶은 학생으로서의 배움의 삶,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인드의 삶,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답을 알려준다는 말씀 등 모든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삶과 죽음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늘 삶을 대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폴 김 교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더 다양하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 삶에 큰 꿈과 도전이 되는 「The-K 매거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애 회원 강원대학교병원

연금법 개정, 고물가 시대에 살면서 이제 '과연 교직은 안정적인 직장일까?'라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이런 와중에 교직원공제회가 없었다면 정말 노후가 불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직원공제회의 'The-K Focus' 코너를 보며 '이것이 나의 뒷배다'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갈수록 힘들고 팍팍한 세상이지만 공제회의 안정성과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는 회원으로서 큰 믿음이 갑니다. 매월 너무나 기다려지는 공제회 소식지에 한 달 한 달 의지하며 계묘년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국*경 회원 일산초등학교

2023년 첫 호에서는 'The-K 예방의학' 코너의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걷기' 운동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돋보였다.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 '걷기' 운동에 대한 다짐은 누구나 계획하는, 지극히 일반적이며 대중적인 운동 방법이다. 특히 이번 호에서 더욱 돋보이는 부분은 이전 '걷기' 운동 관련 콘텐츠보다 한 걸음 더 진화한 내용과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걷기 자세와 강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둔 과학적 분석이 인상적이었다. '묻지마 걷기', '무작정 걷기'만 실천했던 나를 비롯한 많은 회원에게는 비로소 그 운동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적절한 팁을 제공해준다.

임*수 회원 광혜원고등학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노트북 한 번 여는 게 만 보 걷기처럼 힘들어도 「The-K 매거진」을 위해서라면 이 무거운 몸도 움직이게 만듦을 아실는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메일 속 「The-K 매거진」에 별표로 중요 메일 표시하고 클릭합니다. 새해 첫 매거진 속 눈길을 끄는 건 아무래도 '언제나 더케이' 속 'The-K Focus' 내용이었습니다. 늘 변함없이 회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회원들의 희망을 반영해 변화하는 The-K의 모습은 역시나 감동이었습니다. 이래서야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뀌는 것들을 체크해 두고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The-K 매거진」을 사랑하는 분이 더 많아지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 회원 부산 성동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감사한 마음으로 얻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이번 호 '똑똑! 트렌드 경제'에서 자산 관리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경제 지표 9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지표들은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보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시장의 향후 인플레이션 심리를 반영한다는 것과 한국 3년 국채금리가 단기 시장금리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에 자주 나오는 중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성 회원 인천대인고등학교

이번 1월호는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창간 5주년 기념 특별 소장본도 정말 좋았습니다. 회원분들이 직접 선정한 코너를 모아 만들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1월호뿐아니라 특별 소장본까지 또 하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OX 퀴즈도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또한 'The-K Focus'를 통해 2023년 공제회의 달라지는 점, 공제회 대의원회를 통한 회원들을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교직원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The-K 매거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 회원 전남 장흥초등학교

매월 「The-K 매거진」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글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립학교 부속의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해당 자격으로 교직원공제회에 속해 있다 보니 사실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매거진에서 만날 때마다 너무 유익하고, '아, 이런 경험과 이야기들도 있구나' 하며 재밌게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립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도 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공제회 소속으로 다양한 직군의 선생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The-K 매거진」에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 회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저는 공제회에 구좌는 많이 넣고 있으나 그동안 「The-K 매거진」을 꼼꼼히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잘 살펴보고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사장님의 신년사와 좋은 글들을 읽었습니다. 드론 전문가인 선생님이 퇴직 후 보람된 일을 계속한 것을 보고 올해 55세인 저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불어 '매일 체크해야 할 자산 관리 9가지'도 읽어보고 재정 관리에 대한 팁도 얻었습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정독하고 주변 선생님들께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홍*실 회원 일곡중학교

「The-K 매거진」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생각 나누기'의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입니다. 이 글에서 폴 김 부학장의 교육 철학에 대한 귀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사,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긴 고심 끝에 좋은 교사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나'를 찾는 동안 기다려주고 조력자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교사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2023년도에는 더더욱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 회원 파주 문산초등학교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월 많은 회원분께서 「The-K 매거진」을 읽으신 후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The-K 매거진」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때로는 지면을 채워주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는 「The-K 매거진」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

매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50분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가입 회원님들을 위한 서비스

교직원라이프의 헬스케어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교육 가족과의 행복한 동행, 국내 유일 교직원 맞춤형 공제회 생명보험



교육 가족의 든든한 노후와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내 유일 교직원 맞춤형 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입니다. 교직원라이프 생명보험은 회원님들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평소 회원님들의 건강 고민을 덜어드리고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헬스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대상 상품에 가입하신 회원님들께서 일상 속 건강 궁금증도 해결하고 질병을 진단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챙겨 이용하실 수 있도록, 헬스케어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해 드립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 내용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전화 건강/심리 상담
14개과 전문의료진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1:1 건강상담 제공

건강검진 예약
전국 90여개의 네트워크를
통한 특별 우대 검진패키지
제공 (최대 40% 할인율)

일상 속 건강정보 제공
건강관리에 유용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매월 제공 (월 1회)

사고·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

대형병원 진료예약
전국 대학병원과의 협력진료
시스템을 통한 명의 추천 및 신속
진료예약 대행

차량 에스코트
암, 심·뇌혈관질환 수술을 위해
대형병원 입·퇴원 시 차량 편의 제공

방문간호사 서비스
암, 심·뇌혈관질환 진단으로 대형병원
통원, 입원수술 시 전문간호사가 병원
방문하여 질병상담 및 질병관리 교육

교직원 특화서비스

만성질환 케어
생활건강 및 만성질환 분야 관련 건강
코칭 프로그램(4주) 제공

치매예방 케어
치매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자가진단) 제공

맞춤형 건강콘텐츠 제공
• 교직원 3대 만성질환(성대결절/무지외반증/
하지정맥류) 질병정보 제공
• 예비맘, 출산맘 대상 임신/육아/건강 맞춤정보
제공 (임신 1개월부터 신청 가능, 최대 36개월까지 제공)

서비스 대상 회원

본회가 정한 서비스 부가기준※을 충족하고, 피급여자 본인에 의해 **서비스 신청서(헬스케어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콜센터(1577-3993 발신 후 2번) 상담원 통화하여 동의 완료**하신 회원님(서비스 중단요청 시 즉시 해지)

※ 종합공제 및 더블업종합공제 주급여 3구좌 이상 가입건의 피급여자
간편가입종합공제(2104) 주급여 1구좌 이상 가입건의 피급여자

서비스 이용 방법

❶ 헬스케어서비스 가입완료 문자 수신
❷ 헬스케어서비스 콜센터 1661-3380
❸ 헬스케어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간 : 보험가입 익월부터 3년간

단, 본 서비스는 향후 상품 리모델링, 제휴회사 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상단 보험메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보험메뉴에서는 교직원 맞춤형의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님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께 유용한 서비스와 혜택을 드리는 교직원라이프가 되겠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교직원 ONE Life
우리의 온리원은
교직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이렇게 만나세요!

홈페이지 '재정전문위원 찾기' 거주지역과 가까운 최고의 보험 전문위원에게 맞춤형 상품을 직접 추천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상품별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품을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간편하게 '전화 문의하기' **보험가입 상담 1577-3993**

The-K OX 퀴즈

이번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으셨나요?
아래의 OX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5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OX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3. 3. 1. ~ 3. 31.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5. 1. 이후



2월호 퀴즈 정답

QUIZ 1. O
QUIZ 2. X
QUIZ 3. O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상기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안전을 도모하고 국위 선양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로 떠나서 연구한 작물은 '감자'다.
(p.12~15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참조)

2 섬진강 유래비와 수월정이 자리한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일원으로 광양 10경으로도 꼽히는 이 곳의 이름은 '청매실농원'이다.
(p.42~47 「방방곡곡 숨은 명소」 참조)

3 한국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로 교직원 복지 포털 서비스와 S2B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The-K교직원나라(주)'다.
(p.68~71 「The-K Family」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한

새로워진 온라인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토끼 캐릭터 찾아 힌트를 얻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토끼 캐릭터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토끼가 주는 힌트를 따라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25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3. 1. ~ 3. 31.**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토끼를 찾아 클릭 ▶ 토끼가 출제하는 퀴즈 풀기 ▶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5. 1. 이후**



지금은 댓글 남길 시간!
영상 리뷰 댓글왕 이벤트

GS25 GS25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25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3. 1. ~ 3. 17.**
- **응모 방법** : ❶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❷ 「The-K 매거진」 3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이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다신 후**
  ❸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5. 1. 이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DIY 리사이클링」

* 댓글왕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본문 글 내용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K 매거진」 3월 즉석 당첨 이벤트

「The-K 매거진」과 함께 봄 맞으러 갈까요?

옷차림도 몸도 절로 가벼워지는 계절인 봄이 되면
어디든 떠나고 싶어지죠.
그 설레는 발걸음에 「The-K 매거진」이 함께 합니다.

응모 기간 : 2023. 3. 1. ~ 3. 31.



1,000개 —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GS25 GS25모바일상품권 3천원권 —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000개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경품 발송 **2023. 5. 1. 이후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 월~금 09:00~18:00)